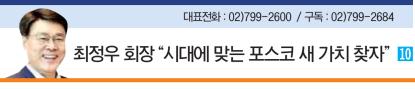
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9월 3일 목요일 etoday.co.kr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제2466호



수기 출입명부 정보유출 논란 🛭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2364.37(+14.82P) **866.74**(+13.37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85.40**(+2.40원) **0.923%**(-0.054%P)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보험료율 올려야"

'저성장·저출산·고령화시대' 40년後엔 국가채무비율 81.1%로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 늘려야 개선…공적연금 재정 가파르게 악화

2020~2060 장기재정전망

현재의 경제성장률 둔화세와 저출산・고 령화가 이어지면 40년 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장기재정전 망(2020~2060년)'에서 현상유지, 성장대 응, 인구대응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국가 채무비율 전망치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하고, 올해 달라진 인구·성장률 추세와 경제·재 정여건을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했다. 지표 로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 3월)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전망 지표(4월)를 활용하고, 한국조세재정연 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함 께 고려했다.

전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의 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P 수준의 수 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올해(43.5%, 3차 추가경정예산 안반영)보다 21.9%P 높아진다. 그나마 생 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전망된다. 여기 에서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병행하 면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한다.

인구대응 효과는 성장률 회복만큼은 못 하다.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 하면 성장률이 개선되나 지출도함께 늘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79.7%로 오르게 된다.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고려 한 전망치도 64.6%로, 수입 확대를 고려 하지 않은 성장대응 시나리오보다 낮다.

공적연금 재정도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 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생산가능인구감소 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1 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이 올라도 적자 전환 시점은 겨우 2년 미뤄 지게 된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성장대응 효과가 크다. 현행 유지 시 2029년 적자 전환되지만, 성장대응 시에는 2038로 전 환 시점이 9년 연장된다.

지금도 재정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2060년 재정수지가 각각 -0.5%P, -0.08%P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공 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 국판 뉴딜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는 구상이다. 쟁점은 증세다. 수입 증대는 시나리오별로9.4~15.7%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를 낸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날 브리 핑에서 "선진국 시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 해 복지 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 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제9호 태풍 '마이식'이 제주를 강타한 2일 많은 비를 동반한 한반도 할퀸 태풍 '마이삭'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시 내 거리에서 한 여학생이 태풍에 망가진 우산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다.

코로나 위중·중증 환자 급증에 당국 '초비상'

수도권 여유병상 거의 동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중·중증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치 료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깜깜이' 확 진자 비율도 높아 추가적 집단감염 발생 우려도 크다. ▶관련기사 4·14·19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124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 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79명에서 이달 1 일 104명, 이날 124명으로 연일 20명대 증 가세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 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서다. 두 집단감염은 이날 낮 12시까지 누적 1558명의 확진자를 냈다. 사랑제일교회 사례(1117명)의 경우 691 명(61.7%)이 50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여유 병상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 중증환자 치료병상 511개 중 여유 병상은 49개뿐이다. 이 중 즉시 가용한 병상은 43개다. 수도권에선 306개 병상 중 여유분은 16개(즉시 가용 9개)에 불과하다.

이에 중대본은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 을 지원해 이달 110개, 연말까지 추가로 102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 자는 "아직은 수도권의 위중·중증환자들을 병상에서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지방으로 보낸 시례는 없다" 고 말했다. 최악은 위중·중증환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전국 의 모든 병상을 활용해도 주말이면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동난다. 단기적으론 일반 음압병 상을 중증환자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 제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 로 비확인 확진자 비율은 연일 20%를 웃 돌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조합원 300명 공공재개발 100가구 더 지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용적률 120% 확대 등 파격 인센티브 불법단속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내년 사전분양 공급일정 내주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2일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 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17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 재하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 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 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치단 조직 강화 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 을 '부동산거래분석원' (가칭)으로 확대 개 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 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 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드 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 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 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처 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 부분을 임대 등으로 지어 기부 채납 비율을 20~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 3종 일반주거지 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일반 재개발을 추 진하면 총 600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공공 재개발로 할 경우엔 700가구로 100가구 더 지을 수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 증거금 58.6兆로 SK바이오팜의 2배 "수익 재미 못보는 개미 들러리" 지적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공개(IPO)가 한국 증시 사상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공모 주 일반청약 경쟁률은 1524.85대 1, 청약증 거금 규모는 58조5543억 원을 기록했다. 6 월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세웠던 종전 최 고기록인 30조9889억 원보다 27조5653억 원 많은 규모다. ▶관련기사 3·16면

대학생 '영끌' (영혼을 끌어모은) 투자 자부터 70대 '주린이' (주식 어린이)까지 광풍에 뛰어들면서 묻지 마 투자에 가려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 증권 등은 2일 마감한 공모주 일반청약 결 과 4개 증권사에 몰린 증거금이 58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지난달 6일 상장한 이루다의 3040대 1을 넘지 못했지만 청약증거금은 7배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 1525대 1 '청약 광풍'

〈일반청약 경쟁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등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라는 기대를 받으며 공모주 청약 후 주가가 올랐던 경험도 최 근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투자자들에게 '학 습 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주당 2 만4000원이라는 공모가가 싼 편은 아니지 만 향후 상승 기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이 라는 평가 속에 상장 증권사 대리점을 찾 는 발길도 적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의 최대 장점은 카카오톡 이라는 플랫폼과 게임 개발, 퍼블리싱 능 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 오 자회사 중 첫 기업공개 사례이며 11월 대형 신작 '엘리온' 공개를 앞둔 점 등도

기대 요인이다.

하지만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들러리 라는 지적이 많다. 보통 기관이 IPO 공모 물량의 60~80%를 가져가고 나머지가 일 반투자자나 우리사주 몫이다. 문제는 기관 들은 상장하자마자 시장에 물량을 던진다 는 점이다. SK바이오팜도 상장일부터 14 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에 나서며 개인투자자들은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시중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이른바 '부동(浮動)자금 블랙홀'을 우려하는 목 소리도 크다.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헤칠 수 있는 문제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여기에 동참하려는 '묻지 마 투 자' 행렬에 몇몇 전문가들은 '레밍(lemming)스 증후군'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출입명부 썼더니… 마음에 들어 연락했어요

황당문자

수기출입명부 정보유출 논란

퇴근 후 홀로 영화관을 찾은 최모(30)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사람으로부 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장문의 메시지에 서 "마음에 들어 번호를 외워 뒀다가 연락 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을까.' 사정을 알아보니 이 사람은 최 씨가 영화관에서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이 었다. 최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여러 사 람에게 노출된다는 사실이 불편해지기 시 작했다.

출입명부 의무 작성이 일반음식점 • 휴 게음식점 • 제과점 등으로 확대하면서 개 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수기 작성 방식이 맹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



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 다중위험시 설을 위주로 도입된 출입명부 작성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에도 도입됐다. 수도권 기준 일반음식점 28만8858개, 휴게음식 점 8만2707개, 제과점 8840개가 방문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QR코드

"QR코드 어렵다" 일부 시설 수기로 관리·감독 허술…불특정다수에 노출 '4주 후 폐기' 원칙도 제대로 안지켜

인증과 출입명부 수기 작성 방식이 병행 사용된다.

QR코드는 '누가', '언제', '어디'에 방문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눠서 보관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만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정보를 암호화하고 나눠서 보 관하다 보니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작 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 후 폐기돼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해킹에 따른 유출 우려 도적다.

문제는 수기로 종이에 작성하는 출입명 부다. 일부 사업장은 QR코드 방식을 적용 할 여력이 없어 일종의 '방명록'을 준비하 고 방문객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적도록 했다. 암호화되는 QR코드 방식과 달리 종이에 쓰다 보니 개인정보가 업주나

직원, 다른 이용객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업주가 '4주 보관 후 폐기하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출입 명부 관리 부실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가 능성도 크다.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김지현(29·가 명) 씨는 "출입명부를 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연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입 명부 작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필 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번호로 연 락이 오면 무서울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중랑구에 사는 이기식(45 · 가명) 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 성한 음식점에 다녀온 후 어머니께 보이스 피싱 전화가 온 적 있다"면서 "수기출입명 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안한 것 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QR코드를 활용한 명부 작성을 권장하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업주나 시설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지원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관리감독을 해 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명부에 적힌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만큼 시민 개개인의 양심 과 사업장의 준법정신을 믿을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에) 더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때 타인이 볼 수 없 도록 하고 4주일간 보관하고 폐기하는 것 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기 대신 QR 코드를 사용해 달라"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찌개물가' 1년 전과 비교해보니

배추 151%·된장 68% 껑충… 펄펄 끓는 찌개값

직장인 A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 해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애호박, 양파, 청양고추, 깐마늘 가격이 많이 올 랐기 때문이다.

역대 최장 장마(54일)와 집중호우 등 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 기 2.5단계까지 시행되면서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최근 급등한 농산물 가격은 이마저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 비자물가동향'에서도 농산물 가격 급등 이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12.1%)과 축산물(10.2%)이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며 10.6% 상승했다. 농산물 에서도 채소류가 28.5% 급등했다. 8월 전체로는 0.7% 상승했다.

1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산물유통정보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직장인 A 씨처럼 된장 찌개(백종원 레시피 기준)를 끓이려면 된장과 고추장, 설탕이 집에 있다는 전제 하에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1490원), 애호박 1개(2410원), 청양고추(100g 1272원), 양파(1kg 2000원), 대파(1kg 3746원), 깐마늘(1kg 1만87원)를 사야

기본적으로 필요한 된장(순창재래식 안심생된장 1kg 기준)은 3980원에서 6700원으로 68.3%, 고추장 (해찬들우리

쌀태양초골드 1kg 기준)은 13800원에 서 14700원으로 6.5%, 설탕(백설하얀 설탕 1kg 기준)은 1580원에서 1680원 으로 6.3%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된장찌개 한 그릇 을 끓인다고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2740 원에서 올해 3761원으로 약 1000원 (37.2%)이 더 드는 셈이다.

김치찌개도 마찬가지다. 고랭지 배추 1포기 가격이 지난해 3823원에서 9594 원까지 150.9%나 올랐고, 돼지고기도 삼겹살 기준 2274원으로 1년 전 1929원 보다 300원(17.9%)가량 올랐다.

가정주부 B 씨는 "호박이나 고추 같은 채소는 항상 구비해야 하는데, 호박 같은 경우 1000원만 넘어도 장바구니에 담기

된장찌개 재룟값 전년比 37% 올라

최장장마에 태풍으로 채솟값 급등

가 겁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 관은 "2011~2012년에 두 해에 걸 쳐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랐 었는데, 그때는 장마에 태풍이 연거푸왔다"며 "(9월에도) 태 풍 같은 게 또 오면 (물가 상승 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 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석을 앞둔 수요 증가도 물가 상승을 부채 질할 전망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

김치·된장찌개 재룟값 비교

(단위: 원)

배추(1포기)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

편리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안전 수칙



삼발이보다 큰 과대불판 사용금지!



부탄캔을 화기



부탄연소기 이단



텐트 내 가스난로 등 가까이 두지 말 것! 적재 및 병렬 배치 금지 가스용품 사용 금지

가스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식당, 주택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주식+어린이: 초보 개인투자자〉

1억 투입, 하루 기대수익 19만원… 주린이 '묻지마 베팅'

IPO 청약광풍 주의보

몇달 전 공모주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투자한 박모(36)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박을 터뜨린 SK바이오팜을 보고 무작정 뛰어든 게 화근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0~20%대까지 널뛰는 주가에 빠져나올 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 투자 새내기인 박 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리츠 공모주' 청약까지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롯데리츠·코람코에너지리츠 등은 투자자 관심에서 소외되면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다. 박 씨는 "이렇게 낮은 가격에 다시는 못 산다'는 지인의 말에 덜컥 청약했던 게 병이됐다. 일반 기업 주식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기업들은 주식 공모 시장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좌판을 벌이고 있다. 공모주 청약시장이 시중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이른바 '부동(浮動)자금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액면분할로 '도박개미'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 정책을 쓰는 곳도 있다. 액면분할이란 주식을 잘게 쪼개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싸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 묻지 마 투자가 몰리곤 한다.

유동성 파티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 아 돈 마련) 개미들이 '영털' (영혼이 털리 는 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들만의 잔치 IPO시장, 돈 버는 '왕 서방'은 증권사·기관= 마이너스 통장 등 '영끌 대출' 1억 원으로 카카오게임즈 공 모주에 청약했다면 수익은 얼마나 될까. 1 억 원을 넣은 투자자라면 손에 쥐는 주식 은 5주에 불과하다. 카카오게임즈의 최대 시초가는 4만8000원, 여기에 가격제한폭 30%를 적용한 상한가는 6만2400원이다. 카카오게임즈 1억 넣어도 달랑 5株 '단타·수수료' 외인·증권사 배불려

"따상 기회"… 헛바람에 덜컥 청약 알고보니 '리츠'…본전도 못 찾아 기업들 '액분' 도박 개미 지옥으로

상장 첫날 판다면 지인들 몇을 모아 겨우 소주 한 잔 살 돈(19만 2000원)밖에 남지 았느다

SK바이오팜도 다르지 않았다. 1억 원을 청약 증거금(50%)으로 넣었을 경우 평균 경쟁률(323대 1)로 계산하면 13주를 배정 받는다. 이날 팔았다면 수백만 원가량의 차 익을 냈을 것이다. 반면 상장 주관사인 NH 투자증권의 최고 우대고객은 일반 고객의 5 배인 44억 원까지 청약할 수 있었다. 이 VIP 는 554주를 받았고 억대 차익을 얻었다.

돈 버는 이들은 따로 있다. SK바이오팜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한 7월 2일부터 21일까지 14거래일 연속 주식을 내다팔았다. 공모주 607만 주를 받아 가서 2주일 새 절반이 넘는 412만 주를 처분한 것이다. '의무 보유 확약' 없이 공모주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 즉시 대거 매도하는 단타에 나서는 것이다.

증권사들도 표정 관리에 바쁘다. 카카오 게임즈만 하더라도 대표 주관사와 인수단에 제공하는 인수 수수료율을 발행금액(인수금액)의 1.2%로 책정했다. SK바이오팜의 인수 수수료율 0.8%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가 밴드최상단인 2만4000원으로 결정된 만큼 카카오게임즈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기본수

6월 이후 공모 청약경쟁률 '1000대 1' 넘긴 새내기주 ※ 출처: 한국거래소 일반 공모 기간 경쟁률 청약증거금 11~12일 1552대 1 2조6599억 원 25~26일 위더스제약 2조7500억 원 1082대 1 8~9일 에이프로 1583대 1 4조6759억 원 13~14일 티에스아이 1621대 1 2조9943억 원 28~29일 이루다 3040대 1 4조1034억 원 29~30일 한국파마 2035대 1 5조9400억 원 4~5일 영림원소프트랩 2494CH 1 4조8495억 원 8조7317억 원 5~6일 미투젠 1011대 1 **8월** 10~11일 셀레믹스 3조1063억 원 1177대 1 11~12일 1조8030억 원 아이디피 1150대 1 31일~9월 1일 P&K피부임상연구센터 7조576억 원 1727대 1

수료는 약 46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법과 저주 사이··· 액면분할의 두 얼굴-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기업들의 우회 상장 통로였다.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사까지 스팩을 찾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무벡스와 '손흥민 샴푸'로 잘 알려진 TS트릴리온 등이 있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IPO 담당 임원은 '현대무벡스나 TS트릴리온의 스팩 합병은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상장기업(발행사)과 주관 증권사의 입맛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했다.

묻지 마 투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융 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0년 스팩이 도입된 뒤 5월 말까지 모두 85개사가 합병에 성공했다. 이들 주가는 상장 승인일 3개월 뒤 공모가 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 67개사가 평균 59.93% 상승했지만, 18개사는 7.7%하락했다. 합병 1년 뒤에는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 평균 1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스팩은 비상장법인이나 코넥스시장 기

업과 합병하기 위해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상장하는 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최근 증시에서 '액면분할' 주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테슬라·애플 등이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에서도 액면분할 이후 전기가 급등하자 국내에서도 액면분할 주의 선전에 증권가에서 '액면분할의 마법' 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액면분할 종목들이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상승할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성헌기자 carlove@

주식·부동산 대박 좇아 '빚투·영끌' 치솟는 신용대출 두 달새 7兆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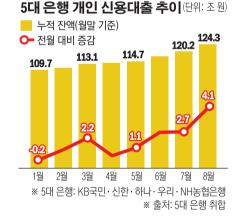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속에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8월 한 달에만 4조 원 넘게 폭증했다.

2일 금융권에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 ·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개인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124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6월 신용대출 잔액이 117 조5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새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8월 은 전달보다 4조755억 원 급증하면서 한 달 기준 역대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올 해 1~5월 5개월간 전체 신용대출 증가치인 4조775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조2000억 원들었고, 이후 17일 동안 2조8000억 원가량증가했다. 은행 5곳 모두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1조 원이상 신용대출이 늘었다. 개인신용대출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많이 늘어난 적은 없었다.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많이 내준 데는 저금리 흐름과 규제 영향, 업계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것보다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시중은행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2.03~4.27%)보다 낮아자연스럽게 신용대출로 몰렸다.

신용대출 상당수는 주식시장 수요로 추정된다. 예금 금리가 연 1% 아래로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몰렸다. 카카오게임즈 청약첫



날 몰린 16조 원 중에는 신용대출 자금이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 면서 '대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대출 수요가 늘 어난 것도 한몫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 중은행 모두 빠르고 편한 모바일 대출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신용대출자금이 주식·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순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에 따르면 2분기 기업대출이 48조6000억 원 증가하면서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50조 원 증가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19조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위험자산을 산 정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시장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라며 "예상보다 위험자산이 크게 늘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재정지출 안 늘려도 건전성 악화… 저성장·저출산에 발목

2060년 생산인구 1678만 감소 가임女 줄어 '인구효과' 제한적 성장대응·수입확대 병행하면 국가채무비율 50%대에서 관리

미래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 화다.

최근 2~3년은 사회·고용안전망 확충과 혁 신성장,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재정지출 확 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이 는 수년 뒤 예정됐던 상황을 앞당겼을 뿐이 다. 단기적인 재정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우 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및 잠재성장률 하락, 세수 둔화로 추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 내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른바 '착한 부채' 선택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장기재정전 망(2020~2060년)'에도저성장·저출산·고 령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먼저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실 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 2030~ 2040년 1.3%, 2040~2050년 0.8%, 2050 ~2050년 0.5%로 전제됐다. 성장률 둔화 의 배경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15~64 세)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중 위)가 올해 3736만 명에서 2060년 2058 만 명으로 167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했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과거 누적된 저출산으로 가임여성이 줄어서다.

따라서 인구대응으로 성장률을 높여 재 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총지출의 절반은 법령에 따라 쓰이는 의무지출이 고, 이 중 3분의 1은 사회복지지출이어서 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지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전망에서도 제시됐듯, 가장 효과적 인 시나리오는 성장 대응이다. 다만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일시적으로

84%까지 오른다. 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 정지출 확대의 영향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40년대 초반에는 상당 히 재정의 역할을 하고, 2040년대 후반 이 후부터는 의무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 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경우 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입 확대는 9.4~15.7%의 국가 채무비율 개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됐 다. 이는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 비 2%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전 제로 한 계산이다. 성장 대응에 수입 확대 를 병행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50% 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올해부터 2024년 까지 매년 100조 원대 관리재정수지 적자 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 타깃 증세보단 보편적 증세가 효과적이다. 일레 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P 인상하 기로 했으나, 그 세수효과는 9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는 증세를 가정해 수입 확대 효과를 전망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온라인 장보기가 대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자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1일 서울 노원 구 롯데마트 중계점에 마련된 온라인 주문상품 집하장에서 직원들이 상품 배송을 위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고위직 늘고 성별임금격차 줄었다

통계청 '여성의 삶'

女 국회의원 57명, 장관 33% 임금差 10%대… "정책 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및 여성 장관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공기관 안에서 성별 에 따른 임금격차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국회의 원 비율은 19.0%(57명)로 4년 전보다 2.0%p, 20년 전보다 13.1%p 상승했다. 여 성 장관 비율도 2015년 5.9%까지 하락했다 가 지난해 22.2%, 올해 33.3%까지 올랐다.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도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 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 따 르면 362개(2020년 기준) 공공기관의 지 난해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각각 1.2%p, 2.6%p 감소한 수치다.





'금융 및 보험업' (27개)의 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 (19개, 15.7%)의 임금격차가 가장 작았 다. 다만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 64.2% 로 가장 높고, 성별근속연수격차도 7.6% 로 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개)의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기관 전체 평균(19.9%)을 상회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공공기관 실태

를 조사해본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 추 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공공 기관의 성별임금격차가 10%대에 진입했 다는 것은 정부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등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뜻" 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과 남성의 직무에 따른 임극격차는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33.4%)이 전체 기 관평균(34.3%)과유사한수준이지만,하 위 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해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병원(18개)의 성별임금격 차(21.9%)는 여성 일반정규직의 경우 간 호직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교수 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 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의 일·생활균 형 지원제도 활성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소희 기자 ksh@

'고효율 태양전지' 1900억 투자

차세대 '탠덤 전지' 집중 셀 · 모듈 제조 최적화 추진 국내 업계, 해외시장 선도

정부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에 향 후 5년간 19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980억 원을 투자하는 등 3300억 원을 들여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세종청사에 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태양광 연 구개발(R&D) 혁신 전략'을 발표했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의 공격 적인 R&D 투자, 미국·일본·유럽 등 의 우수한 원천기술 등으로 국내 태양 광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 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 지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에 투 자를 집중해 해외 경쟁기업과 2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 시장 전환기를 견딜 수 있는 경쟁 력 확보를 지원하고, 탠덤 전지 효율 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전지 고효 율화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1900억 원을 투 자해 2023년 탠덤 태양전지 효율을 26%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 3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980억 원을 들여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물형,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 공 간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다각도로 지 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420억 원을 투자, 셀·모듈 제조 공정의 최적화 운영 등을 통해 저단가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 이며 대기업인 셀·모듈업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 R&D 참여 조건 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공 동 연구인프라인 '태양광 기업 공동활 용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날 한화 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등 기업들과 연구센터 협 약서(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이날 기업이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 환하자는 'RE100' 캠페인의 국내 기 업 동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 다. 지원 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제3차 PPA (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 발전로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 무가 있는 국내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추가 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 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폭발적 감염 억제… 이번 주 분수령"

추석 철도 승차권 예매 1주일 연기 방역 거부·방해 '무관용 원칙' 적용 파업 12일… 전공의 휴진율 7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지 속하면서 폭발적인 감염세가 억제됐다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일을 일주일씩 연기하 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 국민의 일상을 최 대한 보장하도록 그전까지 감염세를 안정 화시킨다는 방침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는 2만449명으로 전날보다 267명 증가 했다. 신규확진자는 지난달 27일(441명) 400명대, 28~29일(371명, 323명) 300 명대를 기록하다가 30일부터 이날까지 나 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아직은 200명 이 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된 상황"이라며 "우선은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가 2차 유행의 확산세를 안 정시킬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에 대 한 기로에 놓인 한 주"라며 국민에게 지속 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애초 2일부터 시작 할 예정이었던 한국철도(코레일)와 수서 고속철(SRT)의 추석 승차권 예매를 각각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 연령대별 추이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 또 창가 측 좌 석만 판매해 판매 비율을 50%로 낮춘다.

정부는 또 다가올 추석 명절에 국민의 이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전까 지 감염세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진입 시키고, 연휴 기간 중 감염 확산 방지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 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 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당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 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 했고, 현재 746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9명 은 구속됐다. 특히 5월 26일 의무화된 '대 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까지 385명을 수사해 198명을 기소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 의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 12일째인 1일 전공의들 의 휴진율은 77.8%로 집계됐다. 전날 (83.9%)보다 수치가 줄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용적률 높이고 기부채납 줄여… 공공재개발 탄력 받나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파 란불이 들어왔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 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 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만 기부채납 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 로해서다.

현재 10여 곳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 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사업 참여 구역 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 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효과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그에 따른 기부 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춘 것이 핵심이 다. 구체적 기부채납 비율은 지자체 조례 로 다시 정해진다.

현재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50~75%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보면 서 울 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 가구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총 700가구 까지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서울시 용

사업 참여 유인책 마련

법정 상한 용적률 120%까지 허용 기부채납 비율 20~50%로 낮춰

투기 수요 사전 차단

조합원 지위 양도받은 사람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

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비율이 30%, 기부 되는 주택이 중형인 전용면적 85㎡라는 전 제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600가구가 최 대인 것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로 100가구 를 더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지어진 700가구는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분양 200가구, 공공임대 140가구, 민간임대·지분형주택 60가구 등 으로 이뤄진다. 일반 재개발로 지어질 경 우 600가구가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 분양 155가구, 공적임대(공공임대+민간 임대) 145가구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 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도 공공임대 물량 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주 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공공시행자인 LH·SH공사 등이 주민 동의로 재개발을 단독 · 공동시행 *동의 요건 - 단독시행(토지등소유자 2/3 이상) 공동시행(토지등소유자 1/2 이상)
- 재개발 활성화 지구 지정 시점에서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는 임대주택(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으로 공급

위를 양도받은 사람에겐 감정평가액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

비싸게 분양토록 한 것이다.

- 활성화지구 내에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 초과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으로 기부채납
 - 활성화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심의 간소 화. - 지자체가 사업 시 행계획을 통합 심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

대로 통과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

움이 될 것 같다"며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활성화 지구 지정 후 조합 원 지위를 획득한 자의 분양가를 일반 조합원보 다 높게 산정해 투기 방지



11구역 등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파격적인 수준으로 제안된 만 큼 참여 의사를 밝힐 지역들이 늘어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은형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용적 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는 빠른 사업 추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곳일수록 공공재개 발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국토부 산하 100명 이내 조직으로 금융자산・신용정보・납세내역 등 개인정보 수집 권한 남용 우려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 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 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 부내부조직으로=홍남기경제부총리 겸기 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가칭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공개했다. 그 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 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 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지본시 장조시단 시레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FIU 모델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 된다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직 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산 하 조직으로 의심 자금 감시를 맡는 FIU 엔 금융위와 국세청, 관세청, 검경 등에서 파견된 직원 약 70명이 근무하고 원장은 1 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

정부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와 같 이 국토교통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돼 있 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모태 로 해 국토부 안에 상설화하는 걸 검토하 고 있다. 규모도 현재(13명)보다는 늘리 되 FIU와 유사한 100명 이내 조직으로 설 립한다는 게 유사하다.

◇규모는 줄었지만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 여전=이 같은 밑그림이 나온 건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 가 전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 부동 산시장에선 금감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 다. 금감원과 견줘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 는 감시 권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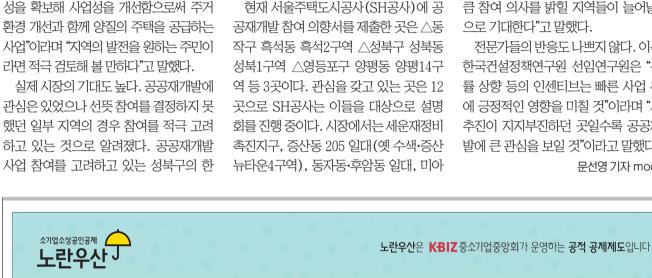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감시기구 성 격을 놓고 이견이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시기구를 독립 조직으로 할지 내부 조직 으로 할지를 두고 여러 이견이 나왔다"며 "논의 결과 내부 조직으로 하는 게 더 실효 성 있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조직 규모나 위상은 시장 예상보다는 축 소됐지만 감시기구 설치를 둘러싼 우려가 가라앉은 건 아니다. 감시 필요성이나 정 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 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국회의 원은 이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개인 금융자산과 신용정보, 납세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거 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갈수록 늘어나 고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 상황 에 대한 감시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허 의원 안(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권한을 부동산 거래분석원도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 의원 안이 당정 공 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열리 면 허 의원 안을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 래분석원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거래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 이나 FIU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 히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칫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 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いいままる ひられるられ~

いかしてくると 21-24-24-1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통합당 '국민의힘' 새출발…"경제민주화 구현"

'의원 4선 연임 제한' 없던일로 정강에 기본소득·주거안정 포함 김종인 "국민 통합 앞장 설 것"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가·나라' 중심의 당명 체계가 30여 년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으로 전 환하며 보수색을 없애고 중도층까지 아우 르겠다는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일 열린 3차 전국위원회 (전국위)를 열고 당명을 포함한 정강정책, 당헌 개정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 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중 당명에 '당'을 없애는 시도도 처음이다.

지향점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으로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당 등 세가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등록 신청을 했으며, 등록증을 교



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 김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부받았다. 이로써 기존 당명 '미래통합당' 은 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시라지게 됐다.

정강정책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새 정강정책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정 강)과 10대 약속인 기본정책으로 구성됐다. 기본정책에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으며,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 주거 안정 등도 포함됐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추진' 조

항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은 전 날 비대위원회와 의총에서의 논의 끝에 최 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상설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도 이뤄 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 와 당의 집권 역량을 되찾는 데 큰 기둥으 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시대에 뒤처진 정당,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앞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578명의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로 진행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2차 재난지원 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의 견차를 보이는 홍남기〈왼 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과 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오른쪽〉경기도지사가 연일 날을 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이 도지사를 두고 "철없다"는 비난을, 이에 질세라 이 도지사는 "철들겠다"고 비꼬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양측의 갈등 시작은 지난달 26일로 거슬 러 올라간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홍남기 "이재명 철없다" 발언 후폭풍

李 "2차 지원금 선별지급 고수 의문"… 與 일부 "홍부총리 무책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홍 부총리가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 "논리 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 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시의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 언"이라고 언급해 이 지시를 자극했다.

이 지사는 곧바로 "당황스럽다"고 응수했으며, 잇단 공격에 나서며 정면충돌했다. 그는 이달 1일에도 홍 부총리를 향해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재난지원금 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를 향 해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



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성준민주당의원은 "논거를들어 입장을 밝힐일이지 분별없는 비난에 동조할일이겠느냐"며 "홍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

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정 말 화급한 상황에 한기하게 국가부채 운운 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 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고 동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국가재정을 이유로 여권 수뇌부에 대놓고 이견을 드러내 험한 분위기를 초래한 전력이 있어 향후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 공개

"추 보좌관이 휴가 관련해 전화"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이 2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관련해 당시 부대 관계자와의 통화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선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한 문의 전화를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대검찰청에고발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 대위와 휴가 승인자로 근무했던 B 중령이다.

두 장교는 추 장관이 당 대표로 있던 시 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관련 문 의를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서 A 대위는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생각했다"며 전화한 이유를 일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B 중령도 "병기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 교가 안 된다 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혜 국민의힘 당 의원이 병무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추장관 아 들은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 녀온 기록이 없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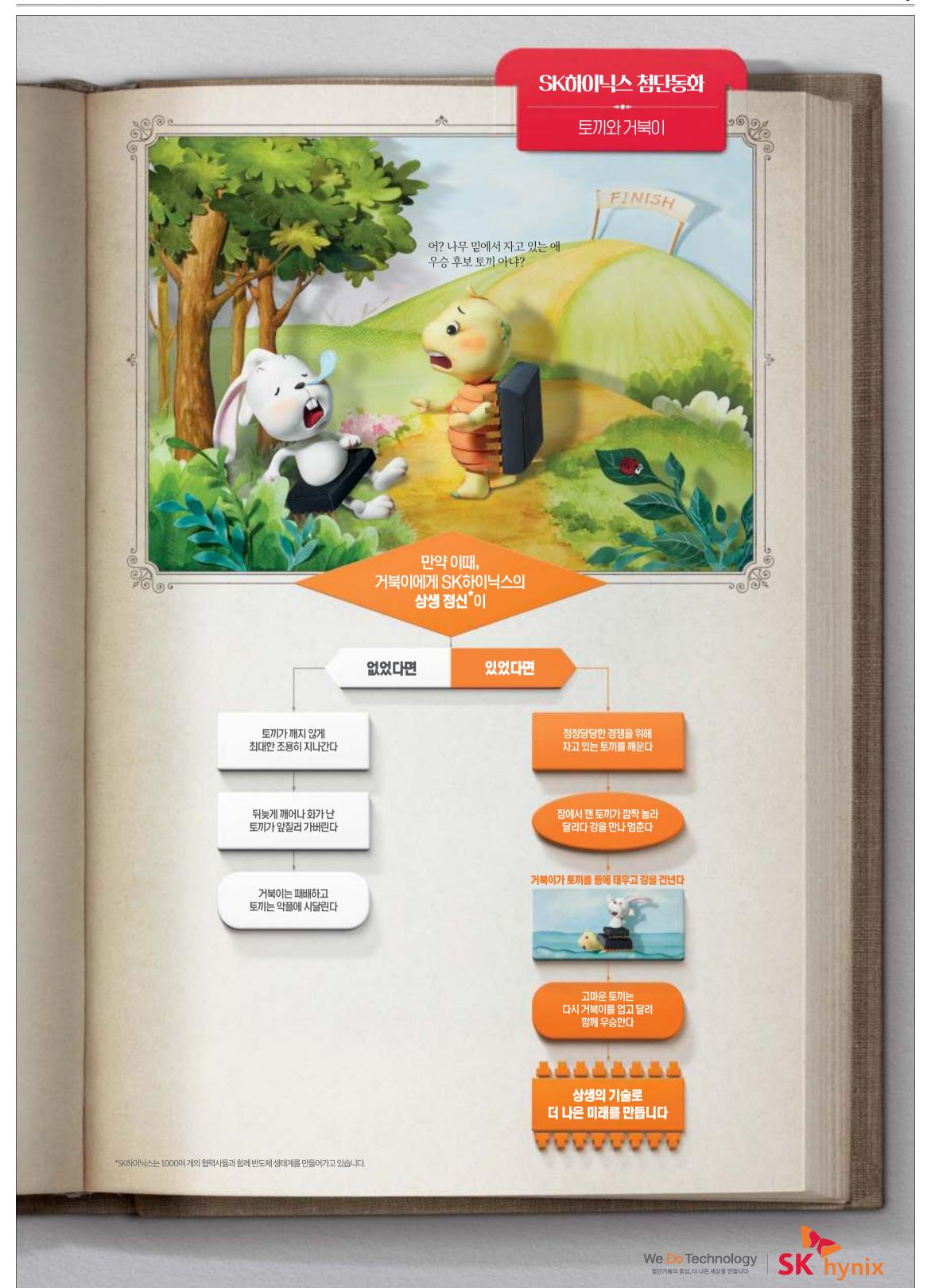
다만 실제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장교와 통화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 았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 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 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잇따른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 회 질의응답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을 뿐 별다른 의견을 내놓 고 있지 않다. 박준상 기자 jooooon@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아홉살 꼬마' 줌 시총, 109년 전통 IBM 눌렀다

'언택트 특수' IT기업 신흥강자 부상 줌, 시총 153兆… 美 상장사 55위 '109년 역사' IBM 제치며 이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 혼란을 비집고 신흥강자들이 부상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던 전통강자들 이 맥없이 밀려나고 있다. 산업계의 판이 증시에서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S&P500지수와나 스닥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 다. 1986년 이후 최고의 8월을 기록한 S& P500과 나스닥은 이날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의 약진에 힘입어 거침없이 뛰어올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부 기술 기업들의 기세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전날 어닝 서프



라이즈를 연출한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 줌 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줌)은 이날 주가 가 40.78% 폭등했다. 이에 시가총액은 1291억 달러(약 153조 원)로 불어나며 PC 업계의 거인 IBM의 1098억 달러를 뛰어섰 고, 미국 전체 상장사 중 55위로 올라섰다.

2011년 창립 이후 9년 만의 신화다. 불 과 9살인 줌이 109살인 IBM보다 몸집이 더 커진 것이다. 에릭 위안 줌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2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전날 줌은 2021회계연도 2분기(5~7 월) 매출이 6억635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보다 약 4.6배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억86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무려 34배 폭증하며 지난해 4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

업이 일반화하면서 줌의 화상회의 앱은 개 인과 기업은 물론 각국 정부까지 사용할 정 도로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줌만의 신화를 창조한 게 아 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이날 기준 시 총이 4426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전통 차 업체 포드(267억 달러)의 20배, 제너 럴모터스(GM, 426억 달러)의 10배를 훌 쩍 넘어선 수치다. 테슬라는 이미 세계 최 대 자동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도 제쳤다.

올해 초만 해도 100달러에 못 미치던 테 슬라 주가는 코로나19 이후 개미 투자자인 '로빈후더'들의 활약으로 몸값이 천정부지 로 치솟았다. 테슬라 시총은 미국 대형 정 유사인 엑손모빌과 유통 공룡 월마트보다 도 많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변은 있었다. 엔비 디아의 시총은 1일 시점에 3411억 달러

로, 미국 인텔의 2160억 달러를 훨씬 웃돌 아 대만 TSMC,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 위 반도체 업체로 올라섰다.

엔비디아는 한동안 가상화폐 시장 침체 로 고전했으나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이 됐 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기 업으로부터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 (GPU) 주문이 폭주하면서 순식간에 반도 체 업계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에는 소프트뱅크 산하 영국 반도체 설계업 체 ARM 인수에도 야심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한 젠슨 황 최 고경영자(CEO)는 '게임에 최적화된 GPU'라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진 반도 체 기업으로 키웠다. 반도체 칩뿐만 아니 라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 축, ARM 인수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 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대만 타이베이에서 2일 기자들이 새로운 여권(왼쪽)과 구여권 표지 사진을 찍고 있다. 우자오셰 대 "중국인 아녜요"… 대만, 여권 표지 변경 만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 국민이 해외여행 중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권 표지를 바꾼다"고 밝혔다. 새 여권 표지는 'TAIWAN(대만)'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기존 'REPUBLIC OF CHINA(중화민국)' 표기는 원에 작은 글 자로 둘러 잘 안 보이게 해 'People's Republic of China(중화인민공화국)'라고 적힌 중국 여권과 차별회했다. 타이베이/EPA연합뉴스

전문가위원회, 우선순위 발표

美 백신 접종 1순위는 '의료종사자'

전 세계에서 현재 개발 중인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력 후보들을 거의 싹쓸이한 미국이 백신 접종 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연내에 이뤄질 것 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전문가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순위를 발표했 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초 기 생산이 한정돼 있어서 백신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보 건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초안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와 응급구조대원, 중증환자로 발전 할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와 요양시설 등 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 등이 우선 접 종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순위에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 종사자, 교사와 교직원, 교정시설 직원과 재소자, 모든 노인과 장애인 등이 속하며, 3순위는 이전 단계에 속하지 않지만, 감염

위험이 큰 산업 종사자와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정했다. 4순위는 그 외 모든 사람 이다.

위원회는이달 말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고안은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CDC)와국립보건원(NIH)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미국은 개발이 다 끝나지도 않은 백신까 지 미리 구입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 의 백신 확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최소 8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입도선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 3억 회분, 프랑스 사노 피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개 발 백신 1억 회분,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 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는 백신 1억 회 분, 미국 노바백스와 존슨앤드존슨, 모더 나가 각각 개발한 백신 1억 회분을 이미 확보했다.

이들 백신 중 실패작이 나오더라도 다른 후보가 성공하면 미국 전체 인구에 백신을 접종하고도 남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증시 시총 89조 달러 '사상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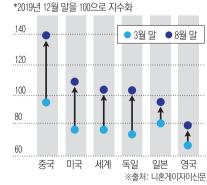
美·中 IT기업, 주식시장 회복 견인… '버블 우려'도 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에도 주식시장에 전례 없는 돈이 몰리면서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 를 경신했다.

1일(현지시간)일본니혼게이자이신 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증 시 시총은 89조 달러(약 10경5634조 원)로 집계됐다. 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다. 미국과 중국 증시가 회복하며 전체 시 총 증가를 견인,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분을 모두 만회했다.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3월만 해도 20조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 행의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덕분에 지 난달 말 시점에는 3월 말보다 시총이 3% 이상 늘었다.

다만 시총 회복 수준은 나라마다 천양 지차다. 미국 증시의 시총은 지난달 말 시점에 37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42% 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점유율이다. 10년 전 글로벌 시총에서 주요국 시총 증가 추이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였다.

미국 비중이 높아진 데는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IT 기업에 세계의 자금이 몰린 영향이 컸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 달 31일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액은 일 본 2000여 개사가 상장해 있는 도쿄증 시 1부 전체 거래액의 3배에 달했다.

중국증시(상하이와선전) 시총은지 난달 말 기준 8조7000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약 40% 급증했다. 코로나19 위 기에서 빨리 회복한 데다 증시 침체기 가 짧았던 영향이다. 중국 증시의 시총 은 지금까지 최고였던 2015년 수준을

웃돈다.

중국 증시는 IT 기업의 기업공개 (IPO)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이 컸다. 올해 중국 본토 증시에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380억 달러 중 IT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3분의 1이었다. 특히 IT 스타트업 중심인 상하이증시 커촹반은 올 한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만 190억 달러가 넘으며 출범 1년여 만에 세계 3대 거래소로 급성장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의 타격을 크 게 받았다. 에너지 및 은행 관련주가 많 은 영국 증시의 시총은 작년 말보다 20% 정도 줄었다.

이에 실제 경기나 기업 실적과 비교하 면 증시 회복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가 예상 주당 순이 익의 몇 배까지 팔리는가를 보여주는 예 상 주가수익비율(PER)은 미국에서는 23배다. 이는 과거 평균 16~18배를 크 게 웃도는 수치다. 신문은 "닷컴 버블 시 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실적 회복이 더뎌지면 주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혜림 기자 rog@

"중국, 10년 내 핵탄두 수 2배로 증가"

美 국방부 "현재 최소 200발 추산"…핵무기 강화 견제

수를 공개하며 중국의 핵무기 강화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 출한 '2020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 서'에서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최소 200발로 추산하고, "향후 10년간 적어도 2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방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감 축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할 목적으 로 이번 보고서에 중국의 핵무기 개발 실 태를 공개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2000년만 해도 중국의 군대를 '대부분 구 식'으로 묘사하고, 능력과 조직, 훈련이 부 족하다고 비하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서는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 년까지 경제와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세 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며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은 이를 위한 노력 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무기 현대화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핵탄두 의일환으로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중급유 폭격기 H -6N을 최초로 공개했다.

> 또 보고서는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비슷하거나 앞선 힘을 자랑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인민해방군은 350척의 함선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만, 미국은 290여 척에 그치고 있다"고 꼬 집기도 했다.

> 사거리가 500~5500km인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합쳐 중국이 1250기 이상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 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탄두 수는 현재 100개에서 5년 안에 약 2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미국은 중국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의 군사기지와 함께 미얀마와 태국, 케냐, 탄 자니아, 타지키스탄 등에도 해외 군사 거 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 >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로나 쇼크' 빚내서 겨우 버텨 자영업자·기업 대출 69兆 급증

2분기 산업별 대출금

도소매·부동산·숙박·음식업 매출 부진에 대출 증가폭 최대 운전자금 52兆 늘어 788.6兆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2분기(4~6월) 도소매업과 숙박 업, 음식업 등 대출 증가액이 전기대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부진 에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나선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2 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잔액은 전기 대비 69조1000억 원(5.5%) 증가한 132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대출잔액이 전기 대비 47조2000억 원(6.1%) 증가한 823 조2000억 원, 제조업 대출잔액은 17조 2000억 원(4.6%) 증가한 38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도·소 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이 급증했다. 도·소매업은 12조4000억원 증가한 186조 5000억 원을, 숙박 및 음식점업은 6조 4000억 원 늘어난 71조2000억 원을 기록 했다. 부동산업도 10조6000억 원 늘어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증감액



272조6000억 원을 보였다. 이들 업종 모 두 전기 대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서비스업 은 코로나19 영향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데 다, 기업들도자금확보노력을 지속하면서 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으나, 매출 부진에 따른 대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에선 금속가공제품 및 기계장비 증가액이 직전분기 2조1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도 전분기보다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전기 대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건설업은 2조5000억 원 불어난 46조 6000억 원으로 집계돼 2008년 3분기 (3조 4000억 원) 이후 증감액이 가장 컸던 것으 로 집계됐다. 건설수주와 분양물량이 증가 한 영향이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은 전분기보다 52조1000억 원(7.1%) 불어난 788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가액에서 역대 최대치다. 시설자금은 17조 원(3.2%) 증 가해 53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대출금 대비 시설자금 비중은 40.6%에 그쳤다. 이는 2017년 1분기 (4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45 조 원 늘어난 1010조8000억 원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24조1000억 원 증가한 31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송 팀장은 "업황 악화로 자금을 확보하 려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가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완화를 시 행하면서 은행・비은행기관 모두 대출잔액 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中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세요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최초

카카오페이가 국내 간편결제 서비 스 중 처음으로 중국 해외 판매 전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결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 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를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지난달 31 일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거대 인 터넷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홍콩 자회 사로, 중국 최대의 해외 판매 전문 쇼 핑몰이다. 한국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 난 3월부터는 한국 전용 물류 노선을 개설해 배송도 이전보다 빨라졌다.

카카오페이 결제는 알리익스프레스 의 모바일 앱, PC 웹 환경에서 지원된 다. 모바일 앱은 결제 단계에서 카카오

페이를 선택하면 된다. PC에서는 결 제 수단에서 카카오페이를 선택한 후, PC 화면에 생성된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5월 자유여행 액티 비티 플랫폼 '클룩'과 지난달 보조제 품·생활용품 온라인 유통 기업 '아이 허브' 등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오픈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며 해외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며 "온라인 해외 가맹점 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

알리익스프레스를운영하는알리바 바 그룹은 카카오페이의 주요 주주이 기도하다. 현재 알리페이의 지분율은 43.9%로, 모회사 카카오에 이어 2대 주주다. 문수빈 기자 bean@

www.douzone.com

DOUZONE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에서 열린 개점식에서 박우혁(뒷줄 우측 두번째) 디지털개인부문 부행장, 이명구(뒷줄 우측 세번째) 디지털그룹 부행장, 디지털영업부 직원 및 신한은 행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銀, 디지털영업부·AI통합센터 출범

신한은행은 창구 없는 영업점 디지털영 업부와 AI통합센터(인공지능)가 출범했 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영업부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 고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대면 상담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 권 최초의 창구 없는 디지털 영업점이다. 최근 2년 이내 영업점 방문 이력이 없는 고 객 1만6000여 명의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 로 디지털영업부의 전담직원이 맞춤형 금 융컨설팅을 제공한다.

디지털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신한 쏠 (SOL)에 전용 페이지인 'My Care' 페이 지도 신설한다. 이 페이지를 통해 △고객 별 맞춤 Care 메시지 △유용한 금융 콘텐 츠 △개인별 추천 상품 △놓치지 말아야 할 금융 일정 등을 한눈에 보면서 전담직 원과 손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I통합센터는 신한은행이 보유한 AI 관련 역량을 결집해 은행의 모든 업무를 AI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신설됐다. 연구 개발이 아닌 AI를 실제 현장 업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한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현장 경

험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유한 직원을 모집해 기존 10명 수준의 AI 전담 조직을 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의 사업 과제 발굴과 AI 및 IT 인프라 역량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속도감 있는 AI 혁신 금융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후견인' 제도를 통해 AI 후견인을 맡은 진옥동 행 장이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을 통해 원신 한 관점의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이다. IT 선도 기업 및 핀테크 기업과 협 업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은 행 업무 전 영역에서 AI 기반 DT를 수행 함과 동시에 관련 노하우를 그룹의 전 계 열사에 전파해 그룹 전체의 AI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설되는 두 개의 디지털 전문 조직을 통해 고객이 체 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 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 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을지타워







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DOUZONE







홈 시네마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삼성, 유럽 전략제품 공개···"'멈추지 않는 삶' 누려라"

가정용 프로젝트부터 신형 비스포크 냉장고·갤럭시탭 등 '온택트' 전시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생활가전 비전 제시

삼성전자가 유럽 하반기 전략 제품을 온 라인으로 공개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여파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 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 불참한 삼성전 자가 대신 온택트(Ontact) 전시회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2일(영국현지시간) 유럽을 중심으로 하반기 주요 신제품을 소개하는 버추얼 프레스 콘퍼런스 'Life Unstoppable (멈추지 않는 삶)'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이 콘퍼런스에서 기술적 한 계를 극복한 연결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개인과 세상을 연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 한 일상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비전을 전 세계 소비자들과 공유했다.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첫 공 개 =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소비자 를 위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TV를 선보 여 온 삼성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프리 미엄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The Premiere)'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제품은 초대형 화면으로 집에서도 영 화관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며, 최대 120형과 130형까지 확장 가능한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특히, 고급형 모델은 트리플 레이저 방 식을 채용해 TV에서 구현되는 것과 동일 하게 4K 화질을 즐길 수 있으며, 프로젝터 로는 최초로 HDR10+와 필름메이커 인증 을 모두 획득해 혁신적 시청 경험을 제공

벽면 앞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초단 초 점 방식으로 복잡한 설치 과정이 없으며, TV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 기능도 적용 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영상 콘텐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 프리미어'는 북미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 이탈리아 등 유럽과 한국을 포함 한 전 세계 시장에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프리즘' 유럽 시장 공략 =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 타일을 담아낸다는 취지의 생활가전사업 비전인 '프로젝트 프리즘(Project PRISM)'이 반영된 제품들을 이번 콘퍼런 스에 대거 소개했다.

특히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는 소비 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주거공간에 맞게 제 품과 색상을 조합할 수 있어 유럽 시장 내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주방 환경을 고려해 내 부 저장 공간을 극대화하는 '스페이스 맥 스(Space Max)'기술을 적용했고, 고효 율 디지털 인버터 압축기로 에너지를 절감 하는 상냉장·하냉동(BMF, Bottom Mounted Freezer) 타입의 냉장고 신제 품(RB7300T)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인기몰이 중인 '그 랑데 AI'기능을 대거 적용하고 빠른 세탁 으로 유럽에서 호평받아온 '퀵드라이브' 기술을 접목한 세탁기와 건조기 신제품을 소개했다.

◇더 강력한 갤럭시 생태계 구축 = 삼성

전자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2'와 함께 새로운 태블릿 제품인 '갤 럭시 탭 A7'과 신규 5G스마트폰 '갤럭시 A42 5G'도 선보였다.

'갤럭시 탭 A7'은 프리미엄 메탈로 마 감한 베젤 디자인에 10.4형 화면, 돌비 애 트모스가 지원되는 쿼드 스피커와 오래가 는 배터리를 장착했다. '갤럭시 A42 5G' 는 쿼드 카메라 레이아웃의 독특한 디자인 에 6.6형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 재해 5G 대중화를 노린다.

또한, 삼성전자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핏2'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 3개 제품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트리오 (Wireless Charger Trio)'도 새롭게 선 보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더 넓고 날렵해진 '더 뉴 코나'

현대자동차가 더 넓고 날렵해진 디자인 으로 돌아온 더 뉴 코나의 내·외장 디자 인을 2일 공개했다. 더 뉴 코나는 기존 모 델 대비 40mm 증가된 전장을 바탕으로 2 열 레그룸을 13mm 추가 확보해 뒷좌석 공 간을 넓혔으며 실을 수 있는 수하물 용량 또한 10리터 늘렸다. 더 뉴 코나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N라인 세 가지 라인업을 10월 중 동시 출시 예정이 다. 추후 2.0 가솔린 모델도 선보일 계획 사진제공 현대차

최정우 회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 찾자"

'2020 포스코포럼' 개최

포스코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진단하 고 그룹 미래 사업전략을 조망하기 위한 '2020 포스코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는 2일부터 이틀간 서울 포스코센 터에서 외부전문가 및 그룹사 임원 등이 참 석한 가운데 '대변혁의 시대, 100년 기업 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 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도권 주재 그룹사 사 장단과 외부전문가 등 소수의 인원만 포럼에 직접 참석한다.

최정우〈사진〉 포스 코 회장은 포럼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의 새로운 가 치를 읽어내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려는

에 맞춰 포스코 및 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생각의 변화에 부응 하여 업의 본질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책 임에 맞추어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가속 화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행사 첫날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변 화와이에 따른 기업의 생존 전략 방향에 관 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날에 는 포스코 주력 사업의 전략 방향을 다룬 패 널 토론이 계속된다. 이주혜 기자 winjh@

'가로본능' 닮은 LG 전략폰 '윙' 14일 온라인 공개 119만원 전망

애플 아이폰, 다음 달 출시 일반·프로 모델 4종 준비 삼성 갤럭시와 '정면 승부'

삼성전자가 '갤럭시 Z폴드2'를 공개 하며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제품을 모 두 시장에 내놓은 가운데, LG전자와 애플 등 주요 경쟁사도 신제품 출시에 나서며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2일 LG전자는 글로벌 미디어를 대 상으로 이날 전략 스마트폰인 'LG 윙'(코드명) 공개행사 초청장을 발송 했다. 행사는 14일 오후 11시(한국시 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20초 분량 영상으로 제작된 초청장 엔 LG 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히 는 듀얼 디스플레이 폼팩터의 모습이 담겼다. 메인 디스플레이가 시계 방향 으로 돌아가며 'T'자 형태를 만들고, 이와 동시에 뒷면에 숨어있던 화면도 모습을 드러낸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휴대폰 '가로본 능'을 연상케 한다. LG 윙의 본 화면 은 6.8인치, 보조 화면은 4인치 수준 으로 알려졌다. LG벨벳에도 탑재됐 던스냅드래곤 765G 애플리케이션 프 로세서(AP)를 실어 게이밍 성능을 강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은 1000달러(119만 원) 안팎이 될 것으 로 보인다.

LG전자는 윙 출시를 기점으로, '익 스플로러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스마 트폰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전략을 펼 친다. 이 프로젝트는 변화 수용성이 높은 고객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모 바일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라인업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기 존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은 '유니버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윙' 예 상 렌더링 이미지.

설 라인'으로 이원화한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합친 데 이어 또 다른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겠 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당기 면 화면이 커지는 '롤러블 스마트폰' 이 윙에 이은 두 번째 익스플로러 프 로젝트 제품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애플의 '아이폰12'도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12를 일반 모델 2종, 프로 모델 2종으로 확대 출 시함과 동시에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애플워치 2종, 오버이어 헤드폰, 소형 홈팟 등도 함께 공개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아이폰12의 기본형 2종 화면 크기는 5.4인치 · 6.1인치, 고급 기종인 프로 모델 크기는 6.1인치 • 6.7인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모 든모델에고급OLED(유기발광다이 오드)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 인 아이폰11 시리즈는 프로와 프로 맥 스에만 OLED가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은 아이폰12 수요가 높을 것으로 자신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서 삼성과 '한판 대결'이 점쳐진다.

노우리 기자 we1228@

조현민 한진칼 (주)한진 전무 겸임

국제특송 분야로 경영 보폭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차녀 인 조현민(37·사진) 한진칼 전무가 ㈜한 진 전무를 겸임하게 됐다.

한진그룹은 1일 조 전무를 ㈜한진 마케 팅 총괄 임원(전무)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물류 사업을 하는 ㈜한진은 대한항 공과 더불어 한진그룹의 핵심계열사 중 하 나다. 조 전무는 이와 더불어 항공 및 여행 정보제공회사인 토파스여행정보의 신사업



및 사업전략 담당 임원 (부사장)도함께 맡게 됐다. 토파스여행정보 의 경우 경영정상화 시 점까지 무보수로 일하 게 된다.

현재 한진칼 전무, 정석기업 부사장을 맡고 있는 조 전무는 이번 인사로 경영 보 폭을 더욱 넓힐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조 전무 선임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한 차원"이라며 "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사 업의 폭도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조 전무는 한진칼에서 신사업 개발 및 그룹 사회공헌 등 그룹 마케팅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CMO(최고마케팅책임 자)로서 ㈜한진의 함안수박 기프트카드, 원클릭 택배 서비스 등의 프로젝트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진은 조현민 전 무가 택배 및 국제특송 분야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주주와 시장 가치를 높이는 역 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kt NETFLIX

KT와 첫를릭스의 초특당방

당신의 일상에 쓰임새 있게 -



오직 KT에서만,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KT 5G 고객

대상: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 한함

기간: 2020.8.14 ~ 8.31

혜택: 넷플릭스 스탠다드 3개월 무제한

올레 tv 고객

대상: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이상 + tv에센스 이상 + 기가지니 2' 신규 결합 가입(3년 약정)

고객에 한함(olleh tv live 상품 및 기본회선 한정)

가입기간: 2020.8.3 ~ 9.30 접수 후, 2020.10.7 까지 개통한 고객

혜택: 넷플릭스 프리미엄 3개월 무제한

※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넷플릭스 유료 자동 연장되며, 프로모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이용약관 참조

현대기이차 '코로나 직격탄' 美 시장서 선방

8월 판매 7.5% 감소에 그쳐…닛산 -42% 등 일본차 부진 실직고객 車 되사는 불황기 마케팅·SUV 신차 전략 적중

지난달 미국 현지 자동차 판매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5% 급감한 상황에서도 현대ㆍ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국시장 점유율은 두 자릿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2일 현대 · 기아차 미국 법인에 따르면 양사의 지난달 미국 판매는 총 11만6736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현대차 판매(5만9721대)가 8.8% 줄었고, 기아차(5만7015대) 역시 전년 대비 6.1% 모자랐다.

하지만 이 기간 일본 토요타(-22.7%) 와 혼다(-21.9%), 닛산(-42.0%) 등 일 본차 업체의 실적은 업계 평균 하락폭(-19.5%)보다 훨씬 부진했다. 자연적으로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다.

올해 8월 점유율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토요타는 15.1%에서 14.5%로, 혼다

>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는 10.5%에서 10.3%로, 닛산은 7.7%에서 5.6%로 낮아졌다.

미국 차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지난 해 7월부터 월별 판매실적을 공개하지 않 는 미국의 빅3 역시 이 기간 20% 안팎의 감 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시장 전체가 19% 넘는 감소폭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 · 기아차의 7.5% 판매 감소는 상대적으로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작년 8월 7.7% 수준에 머물렀던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8.8%까지 1.1%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현대차 특유의 불황기 마케팅, 예

컨대 고객이 실직하면 판매했던 차를 되사 주는 전략 위에 신차와 SUV를 앞세운 제 품 전략이 포개지면서 시장에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올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이후 현대차 시장 점 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3월 8.2% 수 준이었던 시장 점유율은 4월(9.4%)과 5월(9.4%)에 연이어 9%를 넘어섰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판매량 등락보다 시 장의 점유율이 오히려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한다. '브랜드 추종성'이 뚜렷한 자동 차 산업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금 당장은 물론, 향후 3~5년까지 꾸준히 이어 진다는 게 정설이다.

여기에 제품 다양화 전략도 효과를 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미국 SUV 판매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다. 현대차 SUV는 3만8411대로 5.7% 늘었고, 3만 7342대가 팔린 기아차 SUV도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대형 SUV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7983대) 판매가 56% 증가했고, 기아차 텔루라이드(7588대) 역시 월간판매신기록을 다시 썼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가 아닌 해 외판매, 특히 미국의 경우 특별한 계기 없 이는 시장 점유율을 0.1%포인트 조차 끌 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견조한 점유율 상승이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 호"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반도체 시황 예측' 상표권 출원

자체 분석 역량 지식재산화 추진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황 및 가격 등을 전망·분석하는 내부 역량을 지식재산화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를 대비해 반도체 시황 예측 역량을 한층 키우고, 마 케팅 및 투자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 근 특허청에 MMI (Memory Managers' Index)란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상표권은 △경제예측 및 분석업 △ 기업 및 시장연구조사업 △상업적 및 사 업적 통계정보제공업 △시장조사 데이터 및 통계 분석업 등으로 지정, 상품 분류돼

업계는 삼성전자가 자체 반도체 시장 예측 능력에 대한 지식재산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과 협상하고, 생산 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시장 분석 능력이 필수적이다. D램익스체인지, 옴디아, IC인사이츠 등 시장조사 기관이 있지만, 외부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 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 같은 시장 분 석 역량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활용 중이 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메모리 시장에서 시장 분석 능력을 한층 키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반도체 분야는 시장 전망이 특히 중요한 업종이다. 설비 투자에 조단위 자금이들어가는 데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탓이다. 과거 두 차례 반도체 치킨 게임도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설비투자에서 경쟁하다보니 벌어져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바로 삼성 전자다. 당시 삼성전자는 경쟁사가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메모리 1 위에 올랐다. 오너의 결단력과 더불어 향 후 반도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역시 삼성전자는 8조 원에 달하는 낸드플래시 투자와 1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에 나섰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긍정 적으로 보고 향후 호황기를 대비한다는 전 라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장 분석과 관련한 상표권 등록을 통해 향후 이를 더욱 체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나아가 향후 이 같은 시장 조사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신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LS그룹, 14일부터 '온택트 공채' 접수

온라인 직무·채용설명회 병행

LS그룹이 14일부터 2020년 하반기 신 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LS는 매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Nikko동제련, E1 등 4개 계열사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E1은 동계인턴 채용을 고려해 10월 중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규모이며 수 시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00여 명 수준 이다. 모집 직군은 영업, 생산, 품질, 설 계, 지원, 연구개발(R&D) 등 다양하며, 4년제 정규대학(원) 기졸업자 및 졸업예 정자(2021년 2월) 등이 대상이다.

올해 LS그룹 공채의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Untact)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한다는 '온택트(Ontact)' 채용 방식 도입이다.

우선 기존 대학들이 주최하던 채용박람 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채팅, 화상을 통 한 직무 및 채용 상담회 방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또 LS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직무·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명 '브런치미팅'과 '랜선 회식'이다.

LS그룹채용담당자와신입사원들이온 라인으로 취준생약 60여명을 초청, 미리 각 가정에 전달한 브런치(오전)와 치맥 (오후) 등을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서 취업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형태다.

최종합격은 서류전형, 인공지능(AI)역 량검사,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선 발되며, 올해는 채용 상담에서부터 역량검 사, 실무 면접 등 채용 전형을 모두 온라인 으로 진행한다. 송영록 기자 syr@

과기부, 디지털 뉴딜 핵심 '데이터댐' 사업 본격화

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 터 댐' 7대 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

전체 473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4991억 원을 확보해 모두 2103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 7 대 핵심사업을 수행할 주요기업 등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데이터 가공바우처 △ AI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 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7개 사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는 역대 최대 규모

AI 학습 데이터·AI데이터 가공바우처 등 7개 사업 역대 최대 4739개 기업·기관 신청… 2103곳 선정 올해 4991억 투입… 2만8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인 총 4739개 기업·기관이 지원해 총 2103개 수행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 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될 일 자리 기대효과는 약 2만8000여 명이다.

핵심이 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 업에는 2925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데이터 댐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으로, AI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 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게 된다.

시장수요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수요(720개), 공공수요(531개), 해 외 공개데이터 (321개) 등총 1250개 후보 과제에 대해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통신사(SKT, KT), 포털사(네이버, 카카 오) 등 활용기업 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10대 분야 150종의 데이터를 선정했다.

총 1920개 기업·기관(주관기관 278개, 참여기관 1642개)이 신청해 평균 4.2대1 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584개 기업·기 관(주관기관 72개, 참여기관 512개)이 최 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주요 AI 개발 전문기업, 크 라우드소싱 기업 등은 물론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등 37개 대학산학협력단과 서울대병원, 국립암센 터 등 21개 주요병원 등 분야별 전문기업・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어 △AI 바우처 사업(560억 원)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사업(489억 원) △AI 융합 프로젝트 (AI+X)(282억원)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250억 원) △클라우드 이용 바 우처 사업(80억 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405억 원) 등에 예산이 투입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확 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양 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품질관리 가 이드라인 적용, 정량적 품질평가지표 도 입, 활용기업이 참여하는 품질평가자문단 운영, 품질평가 전문조직 활용(정보통신 기술진흥협회) 등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

이와 함께 민간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 털서비스 공공부문 조달이 수월하도록 '디 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10월 중 시 행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를 신설하고, 디지털서비스의 등록부터 계 약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유통플랫폼을 구축한다. AI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규제개선 사항을 종합해 AI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투자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뉴딜반' 운영 을 통해 관계부처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댐 관련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시행 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이더리움 전송수수료 폭등 난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 한계치 권장 수수료 기존보다 50배 올라 전송 이뤄질 때마다 손해 보는 셈 고객 이탈 우려 수수료 인상 부담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사용 증 가와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전송 수수 료가 폭등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전 송 수수료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섣 불리 수수료 인상을 했다가 사용자 불만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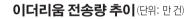
2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에 따르면 4개 거 래소 모두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는 0.01이 더(Ether)로 책정됐다. 이는 수년째 지속 해 온 것으로 원화로 약 5550원(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수준이다.

블록체인에서 전송 수수료는 네트워크 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네트워크 사 용량이 적을 때는 낮아지고, 사용률이 증 가하면 경매방식으로 높아진다.

이더리움은 올해 5월부터 네트워크 사 용률의 90%를 넘기기 시작해 이달 1일 96.97%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 했다.

디파이 프로젝트의 증가로 이더리움 네 트워크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경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수수료 시장도 폭등하고 있

이날 이더리움 네트워크 통계사이트 이 더스캔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사





용하는 평균 수수료는 471지웨이(Gwei· 가스 가격)로 법정화폐로 환산시 33달러 (3만9144원) 수준이다.

단순 전송 수수료도 평소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아졌다. 이더리움 지갑 '메타마스 크'는 단순 전송 수수료로 0.009~0.01이 더(5550원)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 100~ 200원이었던 것에서 폭등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0.01이더로 이더 리움 전송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전송 이 빠르게 되지 않을 때 불만 고객이 늘 것 으로 대비해 권장 수수료보다 높게 설정하 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송이 이뤄질 때마다 손해인 셈이다.

그렇다고 수수료를 즉각 올리기도 부담 스럽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과부하가 해소 되면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 고, 사용자들의 심리적 저항에 따른 고객 이탈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이더리움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 수수 료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hura@

"배달 알바 한 달 하면 한 학기 등록금 벌죠"

'귀하신 몸' 배달 라이더

"한달 동안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벌 었어요." 배달앱 라이더로 일하는 A씨 는 이투데이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 라 배달 주문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소 화하는 '라이더'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높은 수익을 내걸고 라이더 유입 을 꾀하고 있지만 결국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배달 애플리케이 션(앱) 업체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게 아 니냔 지적이 나온다.

◇배달 늘자 라이더는 '방긋'·음식점 은 '우울'=2일 배달업체 '띵동'에 따르 면 지난 8월 18~23일 대비 24~30일 주 문 건수가 15% 늘었다. 또한 주말의 경 우도 8월 셋째 주(22~23일) 대비 넷째 주(29~30일) 주문량이 33% 급등한 것 으로 조사됐다. 배달 물량이 단계 격상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배달 라이더는 부족하다. 알바 천국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전후 기 준을 8월 첫째주(3~9일)와 넷째 주 (24~30일)로잡고 비교했을 때, '배달' 관련 공고 수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약 17.5% 증가했다. 실제 '배달 풍년·라이 더 기근' 현상에 배달대행 업체들은 속 속 고수익을 내걸고 신규 근로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구인·구직 공고를 살펴보면 한 배달대행업체는 대구 지역 배달대행기사·라이더로근무할경우일 급이 15만~35만 원이라고 공고에 명시 하고 있다. '월 750만'이나 '돈많이범'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문구도 눈에 띄 었다.

실제 라이더로 근무 중인 김 모씨 (24)는 "최근 주문 건수가 늘었다"며 "비가 자주 오고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낮에도 배달 주문량이 증 가했다"고 설명했다. 짧게 설명하는 동 안에도 그의 핸드폰 주문 알람은 쉴 틈 없이 울려댔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라이더는 "요 새 쉴 틈없이 배달만 한 것 같다"며 "최 근 한 달간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벌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배달대행・라이더를 잡기 위해 보장한 '고수익'이 음식점주와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2일 서울 중구 한 식당가에서 포장음식을 실은 라이더 가 배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후 배달 주문건수 15% '껑충'

일부 배달대행사 수수료 인상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 '한숨'

배달앱 '라이더 모시기' 경쟁 '최적 배차' AI 기술 활용도

수료는 기본 금액에 추가 거리(500m) 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 구조다.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 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 배달 비 부담까지 높아졌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업단 축, 매장 내 취식 금지 등으로 배달앱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일부 배달대행사 는 이를 기회삼아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 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앱도 라이더 '모시기' 경쟁 점 화=반면 배달앱 업체는 라이더 자체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배달 근로자 수가 적었던 데다 업계 진 입장벽도 높아 신규 근로자를 유치하기 어렵단 것이다. 한 배달앱 업체 관계자 는 "아무리 한 동네에 오래 살았어도 배 차 경쟁이 치열해 스스로 주문 픽업-딜 달의 대가로 음식점이 지불하는 배달 수 리버리 루트를 짜기 쉽지 않다"며 "생각

보다 라이더 업계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개 배달 앱을 켜놓고 좋은 조건 의 배차 콜을 선택하는 라이더 특성상 프로모션이나 배달 수수료로 라이더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배달 앱 업체 관계자는 "타 업체에서 프로모 션 비용을 늘리니 그 쪽으로 가는 라이 더들이 많아졌다"며 "우리도 프로모션 을 늘려 라이더를 '모셔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라이더 부족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업체들은 복지를 보장하고 인공지능 (AI)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 는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라이더가 부 족한 만큼 지속가능한 '라이더-사장님 관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산 재보험으로 라이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자동배차 등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 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도 AI기술을 활용 하고 있다. 요기요는 최근 '요기요 익스 프레스'를 도입, AI가 직접 라이더에게 최적의 동선을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테스트 운행 중으로, 안 정화 이후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다. 쿠팡이츠도 AI 기술과 물류 노하우 를 접목, 고객 주문을 최적 라이더에게 1:1 배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달 중 계속해서 다른 콜을 조회하느라 안 전사고에 노출됐던 라이더를 보호하는 서비스다. 이다원 기자 leedw@

박소은 기자 gogumee@

소상공인 6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불필요"

81% "월매출 30% 이상 줄 것"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말아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 인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는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도소매 ·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4%

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매출 감소 △경기침체 우려 △기 방역조 치 효과 확인 후 추가 조치 여부 검토 등이 꼽혔다.

반면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은 38.6%를 차지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로는 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81.4%)할 것이라는 의 견이 많았다. 또한 약 20% 감소 (10.4%), 약 10%감소(5.6%), 피해 없음 (2.6%)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다원 기자 leedw@

거리두기 2·5단계 희비 갈린 취미생활

잘 팔리는 운동용품

스테퍼·아령·덤벨 등 매출 급상승 헬스장 문 닫으며 '홈트족' 늘어나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 해 8kg짜리 덤벨 2개를 약 7만 원에 구매했다. 헬 스장 1개월 등록비가 3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적잖은 비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헬스장 문이 닫힌 상황이기에 "운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실내 턱걸이(풀업) 기구(약 20만 원 상당) 구매 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헬스장 집합금지가 계속될 수 있고, 제한 조 치가 풀린다 해도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방문이 아무래도 불안해서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운동족에게 이 제 홈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실시되며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은 6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이태 원 클럽발 감염으로 일부 지역 휘트니스센터가 문을 닫거나 줌바댄스장에서 집단감염이 일면서 일부 스포츠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적은 있 지만 특정 지역의 헬스장 전체가 문을 닫은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코로 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집합 제 한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도 전문가의 강 의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양방향 소통이 가 능한 점도 홈트 확산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요가 수업의 경우 강사와 수업 참가자 가 원격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진행되기도 한다.

이처럼 '홈트족'으로 진화한 운동족의 홈트용품 구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이후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과 1일 헬스기구(35%), 웨이트기구 (26%), 헬스용품(14%), 요가/필라테스(25%) 매 출이 직전 주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세부 품목으로 보면 진동운동기구(190%), 스 테퍼(105%), 아령/덤벨(41%), 푸쉬업바 (45%), 훌라후프(87%), 폼롤러(71%), 요가매

혹트 관련 상품 판매 신장률

(단위: %, 전주 대비, 조사기간: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디딩미신	35
	헬스사이클	33
헬스기구	진동운동기구	190
	스테퍼	105
	트램펄린	5
	벤치프레스	21
	아령/덤벨	41
웨이트기구	복근운동기구	38
	악력기/완력기	39
	철봉/도어짐	23
	줄넘기	19
헬스 용품	푸시업바	45
	훌라후프	87
	짐볼	23
요가/필라테스	폼롤러	71
	요가매트	42
		※ 출처: G마켓

트(42%)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라 헬스장과 요가센터 등 이 문을 닫으며 홈트를 위한 장비 구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홈트 제품 수요가 늘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홈트 기획전을 통한 할인 판매도 진행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점포 와 온라인점에서 '집콕 생활 기획전'을 열고 홈트 레이닝 소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홈트레이닝 소품은 20% 할인해 홈플러스 시그 니처 요가매트각 7900~1만9920원, EVA폼롤러 5종 각 7920~2만3900원, 직수입 체중계 각 1만 2700~1만5900원, 케틀벨(4/6/8kg)은 각 6300 ~1만1100원에 판매한다. 홈트레이닝 의류는 남 성용 팬츠 10종 각 1만5990~2만9990원, 아동 트 레이닝의류세트 12종을 각 1만5990~1만9990원 에 내놨다.

홈트 제품은 중고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 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중고 덤벨과 바벨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당근마켓에서 바벨과 벤치 구입에 성공한 A씨는 "매일 사이트에 접속해 매물이 올라오는 지 확인했다"라며 "간혹 원하는 매물이 올라와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 빠르게 연락하지 않으면 판 매자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발길 끊긴 문화센터

가을학기 개강 2주~1개월 늦춰 대형강좌 없애 수강생 50% 빠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 산에 유통가 문화센터가 줄줄이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아울러 강좌 횟수를 축소하고, 수강 정원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확산 예방에 주 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 문화센터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가 을학기의 개강일을 14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코 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휴관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을학기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 주 동안이다.

롯데마트의 가을학기 문화센터도 정부의 거리 두기 2.5단계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14일까지 전 강좌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 강좌는 행정 명령이 종료된 후 취소 및 환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가을 학기 강좌 개강일도 1일에서 내달 5일로 한달 연기했다. 정규 강좌 횟수로 12회에 서 8회로 단축한다. 새로운 강좌 회원도 15일부 터 새롭게 접수를 시작한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신세계아카데미도 1 일인 개강일을 내달 5일로 한달 이상 늦췄다. 대 상은 가을학기 성인·자녀 정규과정 전 강좌다. 신 세계 측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집단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으 로 부득이하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 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문화센터 역시 가을 학기 정규 강좌 횟 수를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고, 개강일을 10월 5 일로 바꿨다. 회원모집은 10일부터 온라인과 방 문접수로 받는다. 현대백화점도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인 가을 학기 강좌를 10월 5일부터 12월 27일로 변경했다.

AK플라자도 가을학기 개강일을 14일로 연기 했다. 광교점과 대전 타임월드, 센터시티, 진주점 등 4곳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갤러리아도 1일 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강에 돌입하고, 가을학기 개강일을 14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고객들의 안



거리두기 강화에 9월 개강을 앞둔 유통업계 문화센터의 수 업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문화센터 앞 휴관 안내 모습.

전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건물 전체 방역 및 소독, 직원 건강상태 체크 등을 수시로 진행하 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30일부터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 점 포는 운영 중단에 들어갔고, 1일 개강 예정이던 전 점포의 가을학기는 10월로 미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대1 강좌나 소수 정예 강의를 많이 확 충했고, 문화센터 자체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 직원과 고객 등의 발열체크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센터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오프라 인 유통업체의 대표적인 집객 수단으로, 충성고객 을 모으는 효과도 쏠쏠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름학기부터 수강생 규모가 50 명 이상인 대형 강좌를 없애고,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없앴다. 일반 강좌도 수 강생을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 영향으로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여름학기 아 카데미 수강생은 지난해에 비해 29% 줄었다. 여 기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을학기 역시 흥행 에 실패, 가을학기 수강 신청자는 19% 감소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가을학기 신청 수강 생은 전년 대비 각각 50%, 28% 뒷걸음질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문화 센터의 운영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한 백화 점 관계자는 "가을학기가 연기되면서 수강 취소 문의가 많아 수강생이 더 빠질 것 같다"면서 "정부 가 3단계로 올리면 문화센터 수업은 폐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마스크 할 땐



매트 립스틱

올리브영 판매율 18%↑ 잘 묻어나지 않아 인기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착용이 의무화되 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 고 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트 러블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면서 진정효과 가 높은 기초 화장품이 주목받는가 하면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눈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이 한층 화려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으로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립 메이크업 제품 은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과거 촉촉한 입 술 표현이 가능한 글로시 립스틱이 인기를 얻었다면 마스크를 써도 묻어나지 않는 매 트립 제품이 립메이크업 시장에서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 영에 따르면 매트 립스틱은 5월부터 8월까 지 석달간 전년동기대비 18% 판매량이 증 가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립 메이크업 부 문 전반이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 에서 이례적인 성장세다.

올리브영에서는 특히 중저가 매트 립스 틱이 인기를 얻었다. 매트 립스틱 판매량 상위 3개 브랜드에 오른 제품이 모두 중저

가 브랜드다. 매트 립스틱 판매 상위 제품 은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페리페 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3CE 무드 레시피 매트 립 컬러 등이다.

상위 화장품 브랜드들도 매트 립스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헤라는 리퀴드타입 틴트인 '센슈얼 파우더 매트'〈사진〉의 신규 컬러 라인을 최근 선보였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는 2019년 팜파스 컬러로 한정 출시된 제품으로 연이은 품절을 기록하자 정식 출 시하게 됐다. 현재 헤라 립 메이크업 카테 고리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미샤는 '데어 틴트 매트타투'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매 트한 틴트 제형으로 덧바르지 않아도 또렷 하게 발색되며, 쉽게 묻어나지 않아 마스 크 착용시 불편함이 덜하다.

지방시(GIVENCHY)의 아이코닉 립 스틱 '르루즈딥벨벳'은 강렬한 레드부터 라이트핑크, 누드톤 등 9종의 컬러를 새롭 게 내놨다.

'메이크업포에버'도 신제품 립스틱 '루 즈 아티스트'를 론칭했다. '루즈 아티스 트'는 매끈한 립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블 러한 마무리감으로 묻어남이 없는 것이 특 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하나로마트, 과즙 폭발 '화산 배'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 통은 부드러운 과육과 많은 과즙에 달콤한 '화산' 품종 배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원황배와 신고배에 비해 화산배는 아직 많 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는 배로 통한다. 화산배는 과실의 크 기가 큰 편이고 신맛은 덜하며 당도는 약 12브릭스 정도로 단맛이 강한 편이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하나 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생산된 화산배를 1만800원(3kg/박스)에 판매한다. 사진제공 농협유통

"밀키트 강화" SPC삼립, 푸드어셈블과 업무협약

SPC삼립이 밀키트 전문 기업 '푸드어 셈블'과 지난달 31일 '밀키트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SPC삼립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 해 밀키트 사업 확장 및 푸드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PC삼립은 신선한 식자재 공급망과 제 품 생산 기술력, 마케팅 역량, 유통 채널 등을 활용해, 밀키트 전문 제조력을 갖춘

'푸드어셈블'과 함께 차별화된 전용 밀키 트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 으로 지역 맛집 메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밀키트를 개발하고, SPC삼립 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판매 할 예정이다.

SPC삼립 마케팅 관계자는 "밀키트 시 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밀키트 스타 트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진행

하게 됐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SPC삼 립의 HMR 브랜드인 '피그인더가든'과 '삼립잇츠'등을 밀키트 영역까지 확장해 푸드 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 했다.

한편, '푸드어셈블'은 2018년 설립된 밀 키트(MealKit, 식재료와 양념들을 세트 로 제공하는 즉석조리식품) 제조 업체다. 자체적인 R&D 기능 등 핵심역량을 갖춰 자사쇼핑몰을 비롯해 쿠팡, 카카오톡, 이 마트몰, SSG닷컴 등에서 제품을 판매 중 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로나 환자 많은 해외로…국산치료제 임상 속도 높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임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팬데믹(대유행) 상황이 계속되는가 운데 해외 임상이 국산 치료제 개발 속도를 당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 각국에서 코로나19 치료 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 착수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은 물론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환자 등록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임상으로 눈을 돌리 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임상 환자를 원활하 게 모집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그동안 상 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 코 로나19 치료제 임상에 나선 기업의 대부분 이 환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여전히 하루 수천 명대의 확진 자가 발생하고 있다.

임상 2상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해 안전 성에 문제가 없고 충분한 효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면 긴급사용승인을 노릴 수 있 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

종근당은 러시아에서 항응고제 '나파벨 탄'의 임상 2상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등증 및 중증 폐렴 환자 100여 명 을 대상으로 나파벨탄을 10여 일 간 투여 해 효과를 확인한다. 임상에 성공하면 국 내외 긴급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최근 누적 확진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전 세계 4번째로 확진자가 많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에서 매일 5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피험자 확보가 쉽다"면서 "빠르면 올 연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설명했다.

국내 주요 기업 회	<u>1</u> 도나19 지료세 (해외 임상 연왕	
기업	약물	국가	임성

기업	약물	물 국가		승인일
종근 당	나파벨탄	러시아	2상	8월 31일
신풍제약	피라맥스	남아프리카공화국	2상	8월 31일
엔지켐생명과학	EC-18	미국	2상	8월 6일
대웅제약	니클로사마이드	인도	1상	8월 11일
셀트리온	CT - P59	영국	1상	7월 29일
제넥신(네오이뮨텍)	GX -1 7	미국	1상	6월 11일
일양약품	슈펙트	러시아	3상	5월 28일
코미팜	파나픽스	스페인 · 이탈리아 · 러시아	2/3상	
유나이티드제약	U I 030	필리핀	3상	예정
이뮨메드	HzVSF	이탈리아·러시아	2상	VII O
셀리버리	iCP-NI	미국	1상	

제약사들 '긴급사용승인' 기대 임상 빠를수록 시장 선점 유리 美·러시아·남아공 등 환자 모집 종근당 "빠르면 연말 결과 확인" 대응제약, 인도 제약사와 협력 셀리버리 등 후발주자도 해외로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한 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역한뉴스

러시아에서는 일양약품이 5월 일찌감치 백혈병 치료제 '슈팩트'의 임상 3상에 나 섰다. 슈펙트는 일양약품이 자체 개발한 국산 18호 신약으로, 국내 개발 신약이 해 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에 들 어간 첫 사례다.

해당 임상은 러시아 제약사 알팜의 주관 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있는 11개 기관 에서 145명의 경증 및 중증 코로나19 확진 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 일양약품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슈펙트를 수출하고, 그 외 국가에서는 코로 나19 치료제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풍제약은 남아공에서 말라리아 치료 제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 2상을 시작한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임상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는 코로나19성인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를 투여하는 임상 계획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등록됐다. 올 12월까지 1차 지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피라맥스는 5월부터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공은 확진자 수 세계 6위로, 지지부진한 국내 임상과 달리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지금까지 19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 생한 미국에서는 엔지켐생명과학과 제넥신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약후보물질 'EC-18'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 회사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3상 책임자인 듀크대학교의 울프 교수를 이번 임상의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C-18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폐렴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2상에 들어간 물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동시에 개발 중인 제넥신은 미국 관계사 네오이문텍을 통해 면역항암제로 개발해 온 'GX-I7'의 임상 1상 시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경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으로, 이를 통해 GX-I7의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인도와 필리핀에 '니클로사 마이드'의 IND을 제출해 지난달 11일 인 도에서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연내 투약을 완료하고, 경증환자와 중등증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 3상까지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회사는 임상 가속을 위해 인도 3위 제약사 맨카인드파마와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 임상 결과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허가제출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이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임상 이후 경증과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2,3상을 진행,연말까지 중간 결과를 확보할예정이다. 또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임상도 시행해 내년 1분기까지 결과를 얻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미팜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문메드, 셀리버리 등이 계획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코미팜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파나픽스'의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7월 스페인에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3상 계획서를 제출했다. 6월 식약처가 파나픽스의 IND를 반려하면서해외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흡입치료제(UI030) 개발 계획을 발표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현지법인이 있는 필리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UI030은 부데소나이드와 아포르모테롤의 복합 개량신약으로, 천식치료제로 6년간 개발하던 약물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에 국내 임상을 먼저 신청하고, 허 기를 받는 대로 필리핀에서도 임상에 착수 할 것"이라며 "이미 현지에서 임상을 진행 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19 치료제 임 상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품질·생산성 '두 토끼' …제약 스마트공장 잰걸음

한미약품 팔탄공단 90% 자동화 종근당건강, 신공장 내년 완공 전문가 "새 비즈니스 모델 필요"

제약·바이오업계가 스마트 공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설계, 생 산, 유통, 판매 등 제조업 전 과정에 정보 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공장으로,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가운데 스마트공 장 운영의 선두주자로는 꼽히는 곳은 한미 약품이다.

한미약품은 2017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팔탄 공단에서 스마트 공장을 운영 중이 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고형제 전 용 공장으로, 자동화 90%를 구현한다. 수 직형 생산 구조로 이뤄진 스마트 공장은 6 ~7층 고층부에서 의약품 원료 제조가 시작 되고, 아래층으로 이동하며 최종적으로 1 층에서 완제품이 포장된다. 완제품은 최종 확인을 거친 뒤 자동화 물류창고로 이동한 다.한미약품은 이곳에서 연간 최대 60억 정의 의약품을 생산 중이고, 생산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대웅제약도 2017년부터 충북 오송에 스마트 공장을 운영 중이다. 주문부터 생산계획, 원자재 발주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해 연간 20억 정의 고형제와 60만

국내 제약업계 스마트 공장 현황

업체명	완공 연도	지역	내용
한미약품	2017년	화성	팔탄공단 연간 최대 60억 정 의약품 생산
대웅제약	2017년	오송	연간 20억 정 고형제, 60만 바이알 주사제 생산
보령제약	2019년	예산	고형제 8억7000만 정, 항암 주사제 6000만 바이알 생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017년	세종	개량 신약, 내용 고형 제제 생산
전속ㅠ다이다==세크	2018년		흡입 치료제 전용 공장
종근당건강	2021년	당진	생산시설 1조 원 규모 증대 예정

바이알의 주사제 생산이 기능하다. 지난해 9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 공장 레벨 3단계(중간 단계)를 확인받았다.

후발주자의 스마트공장 구축 움직임도 분주하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4월 충남 예 산에 스마트 공장을 건설한 후 같은 해 12 월 첫 제품을 생산했다. 생산부터 포장, 배 송까지 원스톱 일괄 체계로 구축해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 능력은 연간 내용고형제 8억7000만 정, 항암 주사제 600만 바이알(약병), 물류 4000셀(cells) 등으로 기존 안산공장보다 약 3배가 늘었다.

종근당은 기존 천안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비교적무인화, 자동화가 쉬운 고형제 라인부터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열사인 종근당건강은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대규모 스마트 공장을 건설 중이다.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전체 면적 4만1042㎡의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된다. 합덕 신공장이 완공되면

판매액 기준 현재 2500억 원 규모의 생산 시설이 1조 원 규모로 4배 증대될 것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협동 로봇 개 발·생산 회사 '로보터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 공장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동구 바이오제약 측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 장 증설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신규설비를 가동했는데 아직 무인화, 자동화가 이뤄지 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로보터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하기 위 해 업체랑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제약업계의 스마트 공장 수준은 설비의 자동화, 무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제약업계 스마트 공장은 설계, 생산 등 공정 자동화, 무인화 등 설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진정한 스마트 공장은 전사적인 지능화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라며 "스마트 공장 설비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부광약품, 항암제 신약 개발 정조준

'임팩트바이오 유에스에이' 투자 신약 포트폴리오 30여개로 확대

부광약품이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 이션으로 항암제 신약 개발 파이프라 인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부광약품은최근CAR-T(키메라항 원 수용체 T세포)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임팩트바이오 유에스에이 (ImmPACT Bio USA)에 25억원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임팩트바이오는 고형암에서 소실이 일어난 유전지를 타깃하는 새로운 CAR-T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로, 설립자인 기디언그로스 박사는 최초의 CAR-T를 디자인한 저명한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항암제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개발 초기부터 빈번한 라이선스 딜이 일어나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관심을 끄는 시장으로 꼽힌다. CAR-T 치료제는 혈액암에 대해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였지만 고형암 치료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도 고형암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할 만큼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분야이다.

부광약품은 그동안 항바이러스제와 중추신경계 약물을 통해 연구·개발(R &D) 노하우를 축적했다. 활발한 오 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항암제로 파이 프라인을 넓히면서 현재 30여 개에 달 하는 직·간접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를 확충했다.

7월 일본 특허를 취득한 전립선암 치료제 'SOL-804'는 자회사 다이나 세라퓨틱스가덴마크솔루랄파마에서 도입한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을 통해 개발 중이다. 빠르면 올해 말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조인트 벤처 재규어 테라퓨틱스도 면역항암 제인 AhR길항제를 연구하고 있다.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에 대한 기대감도 큰 기전으로, 시장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보스턴의 사이토사이트와 진단기술을 가진 뉴클레익의 지분을 확보해 항암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앞서 지분을 보유했던 항암제 개발사 오르카파마는 초기단계에 릴리에 인수된 바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선점하고자 하는 미래 가치가 높은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현대차 '미래 엔진' 달고 '쌩쌩'… "성장주로 재평가"

최근 2주간 11.4% 주가 상승…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1위 미국·유럽 수소전기차 시장 확대… 미래차 사업 '승승장구' 그린뉴딜 정책 수혜 기대… 연구개발 주력 무형자산 비중 늘어

현대차가 '엔진'을 '전지'로 바꿔달며가 치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태어났다. 투자자 들은 현대차가 본격화하는 미래차 신사업 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가치주'에 기대하기 힘든 주가 고공행진 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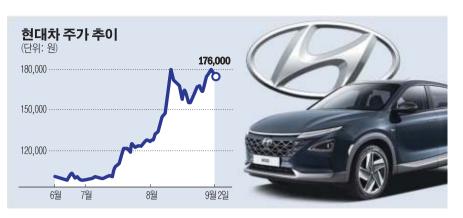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000원(2.22%) 내린 17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며 이날 주춤했지만 최근 2주(8월 19일~9월 2일)간 상승률은 11.4%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박스권에 갇힌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개종목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것이다.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등 쟁쟁한 주도주들을 앞선 결과다.

현대차의 상승에는 미래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 현대차는 성장 중인 소수차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전기차분야에서는 테슬라를 뒤쫓는 후발주자로 평가받는다.

현대치는 오래 공들여온 수소차 사업이 최근 주요국들의 친환경 경기부양 정책으 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실제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제로)'을 달성하기 위 해 수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로 발표했 다. 유럽 전역의 운송 부문에서 수소 에너 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 리할 경우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가 기대된 다. 커지는 수소차 시장은 현대차가 선점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 상 반기 세계 수소차 시장의 현대차 점유율은 83 4%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현대차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보급대 수도 대폭 늘리게 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국내의 수소차 산업은 정부의 지원 속에 글로벌 1위로 성장했지만, 산업의 확장 면에서는 불

확실성이 있었다"며 "이런 불확실성을 EU가 제거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2020~2025년 연평균 66%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본격 행보도 시작된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순수 전기차 9종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연간 56만 대 이상을 판매해

세계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을 6.6%로 끌 어올린다는 목표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및 코나EV의 에너지 효율은 테슬라와 함께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 기준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가 미래차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성장주'로서의 면모도 재평가받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성장주들이 갖는 특징인 무형자산 비중 확대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취득액 기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8.6%에서 작년 45.6%까지 늘어난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미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차 는 연구개발 성과들이 점차 자산화될 가능 성이 크다"며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상장사, 하반기 무더기 '신용강등' 위기

3·4분기 실적 불안감 가중 신평사 등급전망 대거 하향 "코로나 영향 등급 내림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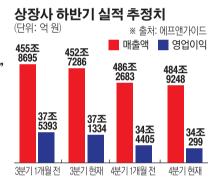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2차 재확산으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기업들이 무더기 신용등급 강 등 위기에 놓였다.

2일 국내 신용평가사 3사 (나이스신용 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따 르면 올 상반기에는 실제 등급 하락보다 도 등급 전망이 대거 하향조정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57개 기업에 등급 전망 및 하향 검토 관찰 대상에 올려 놨 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도각 각 37, 47개 기업을 부정적 대상으로 꼽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

급용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코스 피·코스닥 상장사 236곳(컨센서스 추정기관수3곳이상)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총매출액은 452조7286억원,총영업이익은37조133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집계했던 총매출액 추정치(455조8695억원)와 총영업이익 추정치(37조5393억원)보다 각각 3조1409억원, 4095억원줄어든 수치다

특히 한 달 전에 비해 영업이익 추정 치가 크게 낮아진 종목들은 △제이콘텐트리(-87.6%) △위메이드(-69.9%) △SBS(-56.2%) △신세계인터내셔날(-50.4%) △효성티앤씨(-48.0%) 등이 있다. 또한 △신세계(-45.8%) △GS(-35.4%) △아시아나항공(-34.8%) △대한항공(-30.0%) △롯데 케미칼(-30.0%) △롯데쇼핑(-27.4%) △엔씨소프트(-16.5%) 등의 추정치 하락도 눈에 띄었다.

4분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4분기 총매출액 전망치는 484조9248억원, 총 영업이익 전망치는 34조29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달 전 수치와 비교해 매출액 추정치는 1조 3435억원, 영업이익 추정치는 4106억원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정치의 변화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우려로 증권사 연구원들이 실 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신용평가사들은 하반기 대규모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건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본부장은 "상반기 부정적 전망 및 하향 검토 기업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 난 가운데 하반기 실적 반등 및 재무구 조의 개선이 없으면 등급 내림세는 심 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화 나신평 평가정책본부 연구위 원도 "부정적 전망 기업 수가 긍정적 전 망 기업 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코로 나19 팬데믹 지속으로 국내 대부분의 산업 환경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을 고려할 때 하반기도 등급 하향 기업 수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BTS' 빅히트엔터, IPO 돌입

증권신고서 제출 10월 상장 목표 총 713만주… 최대 9626억 공모 조달자금 절반 이상 M&A에 투입

박히트엔터테인먼트가 증시 입성을 위한 본 여정에 들어갔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빅 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회사는 713만 주의 신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모 집한다. 이 중80%는 일반공모, 20%는 우 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다.

투자자 관심이 쏠린 희망공모가액은 주당 10만5000~13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수요예측은 이달 중순 중이뤄진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24~25일, 해외 기관투자자는 14~25일 중수요예측이 진행되고 공모가액 확정 공고는 28일 나온다.

이에 따라 공모 예정금액은 7487억~9626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모가 밴드를 기준으로 한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6000억~4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 청약은 10월 5~6일로, 10월 중 유 기증권시장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IPO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 자증권, JP모간이며 공동주관사는 미래에 셋대우다.

박히트엔터테인먼트는 기업공개로 조 달하는 자금 중 절반 이상인 4050억 원을 M&A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올해 투입 자금은 150억 원이며 2021년에 1900억 원, 2022년에 2000억 원을 사용할 계획 이다

회사 측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규모 및 상징성 측면에서 글로벌 음악산업을 선도 하는 시장임을 고려해 사업 및 투자 활동 추진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 현지 음반의 제작 에서 나아가 현지 중심의 아티스트 개발 및 글로벌 사업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계 획하고 있다.

또 도메인 사업으로는 해외 기술기업 및 엔터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와 JV 설립 등을 통한 사업 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넓혀 갈 계획이다.

박히트엔터테인먼트는 공모 자금 중 2000억 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한다.회사는 이밖에 신사옥 입주에 535억 원, 운영자금으로 829억 원을 사용한다. 박히트엔터테인먼트는 한강대로에 신축된 용산무역센터(YTC)의 전층(지하 7층~지상19층)에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1년 상반기 신사옥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잘 달리던 카카오 '주춤' ··· 언택트·게임 효과 끝나나

카카오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택 트 수혜 및 자회사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41만 원 전후에서 횡 보하고 있다. 실적 등 뚜렷한 추가 상승 동 력이 부족하다는 게 시장 평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올해 3월 저점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카카오 주가는 3월 19일 13만4000원으로 연저점을 찍은 뒤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5월 7일 20만 원에 안착했다.

카카오는 2개월 뒤인 7월 6일에 30만 원대를 돌파했다. 카카오톡 내광고판인 톡보드의 성장세가 뚜렷한 데다 카카오재팬의 만화 플랫폼인 픽코마와 카카오페이지등 웹툰 사업의 성공을 비롯해 페이와 증

41만원 전후 횡보… 상승세 꺾여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슈 선반영 증권가 "밸류에이션 목표가 도달"

권 등 신사업에서의 성과가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7월 중순에는 주가가 30만 원대중반에서 잠시 주춤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기술주의호실적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8월말에는 40만 원을 뚫는 기염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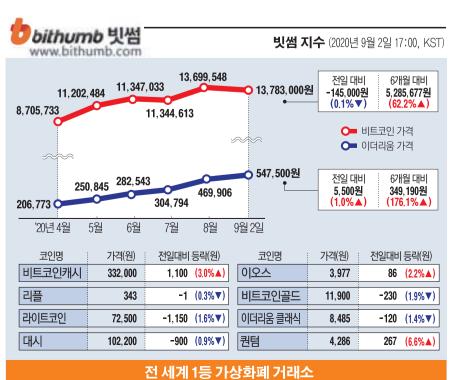
카카오는 8월 31일 장중 42만 원대에 오른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였으나, 키카오게임즈가 청약 이튿날인 2일까지 증거금으로 58조원이 모이고 경쟁률도 1525대 1을 기록하

는 등 역대 최고 흥행을 이어가면서 이날 2.62% 반등했다.

이러한 주가 흐름은 밸류에이션 상 목표 주가에 거의 다다른 데 따른 상승 피로감 은 물론 키카오게임즈 상장 이슈가 선반영 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3개월 간 23개 증권사가 제시한 카카오의 평균 목표주가는 42만6975원이다.

키움증권 김학준 연구원은 "카카오게임 즈 상장 재료는 이미 선반영이 됐고, 당장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따로 없다"며 "카카 오가 상반기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 성했는데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 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 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공포 구미

3만 가구 사전청약, 30代 '패닉바잉' 잠재울까

'태릉CC·3기 신도시 내년 사전청약' 내주 확정 발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가능성…지속적 공급 시그널 '물량 적고 수도권 외곽' 한계…"서울 역세권 중심 공급 확대를"

정부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패닉 바잉' (공포 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사 전청약 물량이 많지 않고 공급 시기도 늦 는데다 입지도 수도권 외곽에 몰려 있어 젊은층의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 지 는 미지수다.

정부는 2일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관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예정 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3만 호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를 중점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 년 태릉CC를 포함한 사전청약 3만호의 분 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 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는 사전청약 분양 대상지로 3기 신도시 중 먼저 발표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 천 계양신도시부터 우선 검토 중이다. 사업 일정상 상대적으로 개발 계획이 늦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신도시는 내후년 사 전청약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 일부 물량을 넣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청약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지는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등 자격을 유지할 경우 100% 당첨된다. 사전청약은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외다른 일반아파트 청약은 허용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해당 지역에 최소 2 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남 양주 왕숙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주민은 1 순위, 경기도 주민은 2순위, 서울 주민은 3순위가 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아파



트를 대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청약가점이 아닌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매달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납입액을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넣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최근 수도권 공공분양에서는 18년 넘게 넣은 2200만 원 이상의 납입액이 있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었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 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 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 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으로 나타나는 시장 안정화 효과 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되레 역효 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는 "정약 가점제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층인 2030세대가 신규이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것 은 마찬가지"라며 "임대주택 공급 역시 일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청년층 에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늘린바 있다. 내년 하반기 3만 호와 내후년 3만호 규모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은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공공분양주택 6만호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127만 호 공급계획 중 경기 북부권의 33만 호 공급계획도 구체화했다.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시그널을 보내 들썩이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에서다.

경기 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9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2만7000호, 내후년 3만 2000호가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인구와가구 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주택 공급지가 수도권 외곽에 쏠려 있다"며 "서울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지식산업센터 승인 상반기 80건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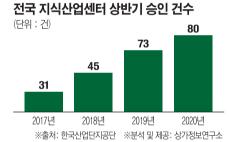
부동산 규제 안받고 세제 혜택 '인기' 수도권 85% 차지…경기 45건 최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꼽히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요즘 인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껴나 있는데다 취득세와 재산세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면서 공급물량도 늘고 있다.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산업단지공 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 기 신설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 센터는 80곳으로 1970년 이래로 역대 가 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예상 건축 면적 은 359만2583㎡에 달한다.

상반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올해들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31건) △2018년 (45건) △2019년 (73건)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을 상반기 전국에서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45 건이 승인받았다. 이어서 서울 13건, 인천 10건, 충북 3건 순이다. 상반기 전체 지식



산업센터 승인 건수의 85%가 수도권에 집 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지식산업 센터(옛 아파트형공장)가 최근 공급 물량 과 신규 분양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되는 지식산업 센터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임대 수요도 줄고 있어 지 식산업센터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지식 산업센터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비교 적 자유로운 대출 환경과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공급 과잉으 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성적은 좋지 않다"며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내 수 경기 침체가 지속하며 지식산업센터 투 자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AIN NO. CONTROL OF THE NO. CON

* TREATHER BETT PROPERTY BETTER THE TOTAL CO.

原因的主要权利为公司的国际保险。申以主任中央公益的最大部分的公司。
 自己之类等与通讯方面的复数公司会会通知证。中华公司是全国公司会会。

※ 飲みとと前 中中間質 (15) 下級的 人物的 傷跡の下離 数字を44位。 ※ 2047 後 別 2046 間形 80年 月間7 後の 1071 世際版 中 50分(日)

※ 回答年の利用をおびから 手物の 後付款 ウガラ、フォルデ 様式の (第十四条数 で)

1599-8245

6대 광역시 집값 상승률 1위 '부산 수영구'

1년간 36.1% 올라…2~5위는 대전

6대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 자치구기운데 지난 1년간집 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지역은 부산 수 영구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영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은 3.3㎡당 1551만4000원에서 2111만 8000원으로 36.1% 올랐다. 지방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영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조정대 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 다. 해안 조망이 가능한 신도심 지역이어 서 이전부터 주거 선호도가 높았던 데다 규제 불확실성까지 걷혔기 때문이다.

노후아파트단지에서도재건축사업속

도가 빨라지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 수영 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남천동 삼익 비치 전용면적 131㎡형은 지난달 17억 3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8월 같은 면 적이 8억1000만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 면 1년 만에 값이 두 배 넘게 올랐다.

광역시 아파트값 상승률 2~5위는 대전이 싹쓸이했다. 중구(29.8%)와 서구(29.0%), 유성구(27.9%), 동구(16.2%)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 시내 5개 구(區) 가운데 유일하게 5위권에서 밀려난 대덕구(14.1%)도 6대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선 아파트값 상승률 7위였다. 몇 년 새 대전지역에선 아파트 수급 불안이 이어진 데다 재건축ㆍ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세가가팔라지고 있다. 박종화기자 pbell@

대한항공, 부가세 120억 돌려받는다

법원 "항공권 구매 제휴 마일리지도 에누리… 과세 제외해야"

대한항공이 12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고객이 제휴 마일 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가 항공사에 보전해준 금액도 '에누 리액'이라고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 (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108억 원의 부가세 부과 처분과 13억 원의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

이 판결에 불복한 강서세무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소송을 취하했다.

대한항공은 카드사와 은행, 호텔 등과 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한 마 일리지를 항공권 구매나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고객 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 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았는데 이를 과세표 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롯데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 포인 트를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그 포인트 금 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 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 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과세당국은 대한항공이 낸 부가세도 이 와 유사하다고 보고 환급을 결정했다. 그 러나 제휴 마일리지에 따른 정산금은 전합 판결에 나온 거래구조와 다르다고 판단하 면서 다시 10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13억 원의 부가세 경정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대한항 공에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 휴 마일리지는 적립 사업자(제휴사)가 사 용처에 그만큼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 상 현금거래와 같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는 것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대한항공은 2017년 9 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 · 2심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도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업무제휴 계약을 비롯해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이고 대 한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 용역 등을 공급 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1차 거래 당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으로 대한항공이 2차 거래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 은 할인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I에 게재됐습니다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왼쪽)가 정부 집단 휴진, 엇갈린 시선 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 옆에선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의료계의 진료 거부 철회 및 의료현장 복귀를 촉 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휴수당 받은 건설노동자 월급 3.4% 올라"

법조계 "강제성 없는 檢 수사심의위 손봐야"

검찰서 권고 무시… 신뢰 추락 무작위 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대검찰청 검찰수 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고 있 다. 인권 보호와 수사의 객관화를 위해 도 입됐지만 비전문성,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 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제도 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전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 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데 대해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 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에 대 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연달아 무시했다.

수사심의위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는 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시각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법학 교수, 종교 인, 언론인, 퇴직공직자 등 사회 각계 전문 가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 정된 현안위원 15명이 논의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권고한다. 다만 검찰총장 이 현안위원 구성을 최종 승인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작위로 위원을 선 정 방식이 오히려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 온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에도 심의위 개최 당시 검찰이 1년 6개월여간 수사한 내용을 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심의위원들이 잠시 들여다보 고 기소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시, 7월부터 지급

서울시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에서 약속한 주휴수당을 7월부터 지급한 결과 공공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5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 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 자의 7월 임금을 분석했다. 노무비 지급 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따져본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 비율은 23%, 월 평균 임금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 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다"면서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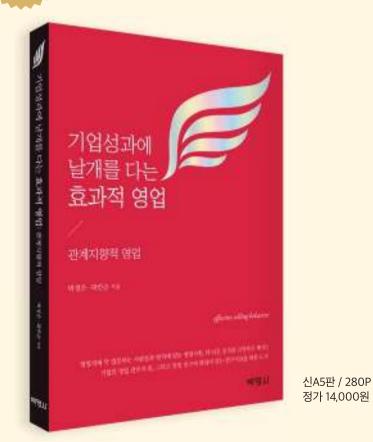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 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 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 후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과 감독부서 에 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 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 여갈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그간 건 설현장이 일당제 중심의 근무환경이었다 면 앞으로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으며 사 회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앤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확진자 느는데… 구멍난 교육부 '심리방역'

일선 학교 "지침 없어 자체 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에 학생들이 여전히 정서적 위 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 진자는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당국 의 심리 방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방역'은 총 다섯 차례의 등교 연 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등 정서적으 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교육 당국 이 추진 중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 능한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 등 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심 리적 충격이나 낙인 우려 등으로 학교 복 귀까지 필요한 심리 치료를 최대한 지원하 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 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이러한 심리 방역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제 대로 전달되지 않아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의 한 여고 관계자는 "학생 한 명이 8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31 일 또 다른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서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심리 방 역'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과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도움 을 주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가정에서 개 별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

부산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감은 "지금까 지 8명의 학생이 확진됐었는데 교육부에 서 심리나 정서적 지원 관련 지침은 내려 오지 않았다"면서 "교내서 섭외한 심리 전 문가가 자체적으로 아이들의 심리를 돌봐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심리 방역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에 '심리방역'에 대한 지침 을 전달했으나 일선 학교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 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교직원은 539명으로 집계됐다.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날 8052곳에서 156곳 늘어 14개 시·도 8208개 학교가 등 교수업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광주광역시 유치원, 초·중· 고(고3 제외)는 다음달 11일까지 전면적 인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 전남 광양지역 학교도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손현경 기자 son89@



2일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접수 시작 응시원서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수능의 응시원서 는 18일까지 전국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사진은 발열자를 위한 접수 공 간이다.

돌봄휴가 기간 늘린다

체험학습 60일로 확대

정부가 기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 파로 원격 수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 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과 이러한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

정부는 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가족 돌 봄 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10일간의 비용 지원 일수를 늘 릴 방침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관 내 돌봄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한다. 구체적 으로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 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 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교육 일수로 인정되 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감염 우려 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 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 록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재택근무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택 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시 임산부와 만 12 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 인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인상 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지원한 다. 월 최대 40만 원이었던 임금감소액보 전금을 60만 원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손현경 기자 son89@

101개 대학 입시 변경… 바뀐 일정 꼼꼼히 살펴야



고3 수험생 부담 완화와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4년제 101개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을 변경하면서 대입전략을 수 립하던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2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각자 대입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등 수험생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 라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 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논술을 준비 하던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학습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 졌다"며 "대학별 일정 에 따라 수능 직후 주말을 포함해 4일간 수시에서 비슷한 선호도 대학인 성균관 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연세대 등 5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한 만큼 일정을

연세대, 수능 후로 논술 연기 비대면 면접 연습도 필요

꼼꼼히 살펴 지원가능 여부를 다시 살 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는 기존 10월 10 일로 예정된 논술고사 시행일을 인문사 회계열은 12월 7일, 자연계열은 12월 8 일로 각각 연기하면서 경쟁률이 오를 것이라 분석이 적지 않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연세대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난해에는 수능 전에 시험을 치러 예 상보다 경쟁률이 낮았다"면서 "이번에 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고 다른 대학과 겹치지 않게 월·화요일에 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권 성적의 수험생들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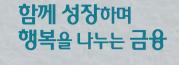
거 합류하는 반면 결시율은 낮아질 가 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면접을 비대면으로 치르는 대학도 이 어져 면접 연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상 업로드 방식은 답변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 어 수험생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라면서도 "면접을 실시간 비대면으 로 볼 경우 바뀐 부분 때문에 어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 는게 가장 중요하다. 임 대표는 "확진뿐 아니라 자가격리자가 되는 상황까지 피 해야 한다"며 "수험생 본인은 물론 가족 들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피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 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하나금융그룹

爱比好似约室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なけるからならる001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온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기후위기 극복, 과감한 정책·시민 참여가 해답"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총괄' 권민 환경에너지기획관

전문가 25인 '기후행동포럼' 구성 11개 전략 정책제안 마련 시민들도 대중교통·조명 끄기·1회용품 덜 쓰기 작은 실천을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이 말이 유행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었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데 이견은 없다. 약 972만 명이 거주하면서 매년 4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메가시티' 서울도 기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고 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를 중심으 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환경본 부는 250명에 달하는 인력이 연간 70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기후변화는 물론 대기 질 개선, 친환경 차 보급, 에너지 대 책 수립 등 서울 대기보존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선봉에 섰다.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권민〈사진〉 환경에너지기획관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할 것"이라며 '친환경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 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2012년부터 서울 시 기후환경본부에서 근무해온 이 분야 전 문가다.

권 기획관은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그 린뉴딜에 대한 철학을 내비쳤다. 그는 "그 린뉴딜의 전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 한 명확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서울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준비했다. 탄소중립 도시는 도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숲 조성 등을 통해 감축되는 상쇄량이 같 아서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도시 를 말한다. 온실가스 흡수를 위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그만큼 나무 를 심거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시

권 기획관은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발굴 을 위해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기후행 동포럼'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건물, 교 통, 폐기물, 에너지 4개 부문 11개 전략을 담은 정책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7월 '그 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건물 • 수송 • 숲조성 • 에너지 · 자원순환 등 5대 부문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기획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정 교한 정책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고 역설했다. 그는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덜 쓰 기 등만 실천하더라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 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산불이나, 홍수, 가 뭄 등의 기상재해는 물론 해충 증가, 전염 병의 대유행을 기후위기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해 추진하는 혁신적인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해주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 서 동참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청와대 신임 부대변인에 임세은 청년소통정책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대변인에 임세은 현 청년비서관실 선임 행정 관을임명했다고청와대 가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전임 윤재관 부대변인이 지난달 31일 국정홍보 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인사 이동했다. 임 부대변인은 1981년 생으로 이화여대 경제 학과를 졸업한 뒤 한화증권과 미래에셋대 우증권 등 증권업을 거쳤으며, 민생경제연 구소장으로 일하다 올해 4월 대통령비서 실 청년소통정책관으로 발탁됐다.

정일환 기자 whan@

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에 남요원 前 청와대 문화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는 남요원 전 청와대 문 화비서관을신임상임감 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 혔다.



남 신임 감사는 동국

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민족예술인총 연합 사무총장, 세종문화회관 정책보좌 역, 청와대 문화비서관실 비서관 등을 역 임했다. 남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2년 8 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소희 기자 ksh@

보령제약 전문의약품 마케팅 총괄 Rx마케팅본부장에 성백민 상무

보령제약이 전문의약 품 마케팅을 총괄하는 Rx마케팅본부장에성백 민 상무를 1일자로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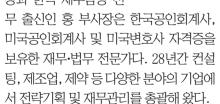


성백민 상무는 한국얀센에서 영업마케 팅 업무를 시작으로, 한국노바티스에서 전 략 및 사업개발 담당임원, 신경계·호흡기 계 사업부 담당임원을 거치는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전문의약품 마케팅 업무를 담 당했다. 회사 측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전문의약품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통찰력 이 높은 마케팅 전문가로 업계에서 평가받 는다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제넥신, 신임 최고재무관리자에 로킷헬스케어 출신 홍성준 부사장

제넥신은 새로운 최고 재무관리자(CFO)로홍 성준부사장을영입했다 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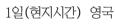
로킷헬스케어 총괄사 장과 한독 재무담당 전



유혜은 기자 euna@

"뇌졸중 앓았다" 건강이상설에 트럼프 "모두 가짜 뉴스" 격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뇌졸중'을 앓았다며 건 강이상설이 제기되자 격 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트위 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추측은 모 두 가짜 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일련의 경미한 '뇌졸중' 으로 월터리드메디컬센터 에 갔다고 말하려 한다"며 "이 대선 후보 (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 다. 가짜 뉴스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정당 (민주당)의 다른 후보(조바이든)를 언급 했을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소설가이자 반(反) 트럼프 운동가인 돈 윈슬로는 이날 트위터에 "한 달 전 내가 올 린 트윗은 100% 진실"이라며 "나는 해당 정보를 3명의 소식통으로부터 받았다"고 썼다. 그는 8월 초 "트럼프가 임기 중 일련 의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글을 남겼다. 이 질환은 '미니 뇌 졸중'으로 불린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96명에 장학금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6일 이 사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2학기 장학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2학기엔 38개 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 96 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장학금 총액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학금 수여식은 따로 열지 않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 • 아프리카 • 중 남미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 다. 지금까지 유학생 1883명에게 총 72억 원을 후원했다.

재단 측은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훗날 고국과 한국을 잇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pbell@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예측한 코로나 이후의 삶은?

KAIST, 9일 온라인 국제포럼 빅터 자우·김광수 교수 등 참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의료·바이 오 공학의 혁신 전략을 주제로 포스트 코 로나 시대 이후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실시간 온라인 국제포럼을 9일 오전 9시부 터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5층 정근모 콘퍼런스 홀에서 개최한다.

2일 KAIST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 의료·바이오 혁명'이라는 주 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KAIST 글로벌 전략연구소(GSI)가 지난 4월과 6월에 이 어 세 번째로 여는 국제포럼이다. 의료·바 이오 기술혁명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미래전략을 도출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선 세계적인 미래학 자이자 미래 산업·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왼쪽부터 빅터 자우 미국 의학한림원 회장,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조지 맥도날드 처치 하버 드 의과대학 교수, 수잔 투시 일루미나 수석 부사장, 김광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서 통찰력 있는 예측을 제시해 온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바이오 공학기술과 인 류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빅터 자 우 미국 의학한림원 회장은 미국의 건강관 리 혁신을 이끌어온 경험을 공유하고, '코 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전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의료・바이오 공학 혁신정책 및 미래상을 제시한다.

유전체 서열분석법을 최초로 개발한 세 계적인 석학인 조지 맥도날드 처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유전자 편집 및 게놈 기 술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기업인 일루미나사의 수잔 투시 부사장 겸 최고 제품 책임자는 유전자분석기술 개발 사례 를 소개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 가능성과 이를 통한 수명 연장 방안에 대해 모색한 다.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 치료를 세계 최 초로 성공한 김광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도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다.

이재훈 기자 yes@

'슈퍼콘크리트 개발' 김병석 박사, 9월 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은이달 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김병석 박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 박사가 200년 수명의 초고강도・고내구성 슈퍼콘크리트를 개 발하고, 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교량과 빌딩

을 건설해 실용화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자갈 대신 마이크로・나노 물질과 강섬유를 사용해 조직이 치밀한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슈퍼콘크리트'라 명명했다. 슈퍼콘크리트 는 압축강도 80~180메가파스칼(MPa), 수명은 200년이 넘어 일 반 콘크리트 대비 강도는 5배, 수명은 4배 향상됐으며, 제조원가 는 반으로 줄여 경제성을 높였다. 이재훈 기자 yes@



이투데이 사회경제부 김소희 기자가 양성평 등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 관상을 받았다.

여가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 실에서 25주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열었 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은 9월 첫째주(1~7일)

로,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 여한다.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공자 75명 가운 데 일부만 참석했다.김 기자는 두터운 유리천장으로 여성들이 경 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기획 기사로 양성평등 사회 실 현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다. 손현경 기자 son89@

본지 김소희 기자 '양성평등 공로' 여가부 장관상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혁신정 책담당관 박성궐 △예산기준과장 김경국 △기금운용계획과장고정삼△공공정책총 괄과장 이상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기 남 △인재경영과장 이재완 △윤리경영과 장 황병기 △개발협력과장 신준호 △재정 정보공개과장 이석균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장 관정책보좌관 김영근 ◇과장급 전보 △자 유무역협정이행과장 윤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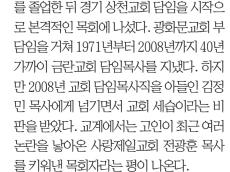
▮부음

'세계최대 감리교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세계최대감리교회로 꼽히는금란교회의김홍 도 목사가 2일 별세했 다. 향년 83세.

김목사는서울중랑구 금란교회를신도수만명

의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키워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1963년 서울 감리교 신학대



▲신혜정 씨 별세, 신중돈(전 총리실 공

·현주(웰스프론트 근무) 씨 모친상 =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2-3410-6901 ▲조영태 씨 별세, 조동식(전북 경제통 상진흥원 통상마케팅실장) 씨 부친상 = 2 일, 전주시 효자장례타운 201호,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63-228-4441

보실장) 씨 부인상, 신현정(그레일 근무)

▲신대균 씨 별세, 신종현(농협재단 사 무총장) 씨 부친상 = 2일, 포천시 영북농 협장레식장, 발인 4일, 031-532-0832

בוי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 및 처벌 강 화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미국 나스 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 자자들을 모집해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08년 체 포돼 15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 중이다.

이미 예고된 사모펀드 사태

지난해 10월 파생결합펀드(DLF) 사건 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다. DLF 사 태로 7950억 원이 묶였고 우리은행 40%, 하나은행은 71%의 손실이 났다. 뒤이어 터진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700억 원이 환 매 중단되었고, 펀드 돌려막기 등 라임자 산운용의 심각한 부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 졌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밝혀졌고 피해 금액만 5200억 원 에 달했다. 이밖에도 디스커버리펀드, 독 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펀드, 팝펀딩펀드, 젠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모 펀드의 문제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점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

은행들은 위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독일이, 미국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 면 안전하다"고 말하며 예금처럼 팔았다.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금융 감독원 조사로 밝혀졌고, 분쟁조정위는 판 매사의 책임을 물어 DLF는 최대 80% 배 상을,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 후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원 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

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시례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증 권, 신영증권은 사적화해)들은 '시간 끌 기' 끝에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라임 전액 환급인'을 수용하였 다. 판매사들의 수용으로 인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총 1611억 원)들도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 었고, 이는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발 생한 것이다.

사모펀드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자본 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 화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모펀 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최소 자본금은 10억 원까지 내려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또한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으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법안 개정 당시에는 금융위 가 5억 원을 고수했으나 시행령에서 슬그 머니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사모펀드는 가 입금액(전무투자형)이 2014년 173조 원 에서 2019년 416조 원으로, 5년간 243조

원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안전한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 달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해, 처음부터 자산운 용사가 사기를 벌인 사건이다. 이것이 가 능했던 이유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로 운용사는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를 면제받 고, 판매사나 수탁사 등은 감시나 위법 사 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 다. 그 결과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겼고, 옵 티머스가 그 허점을 파고들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 해결 과정에서 분조위가 DLF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강제력이 없다보니 판매사 들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별적으로 수용(DLF는 수용, 키코는 거부)하는 사 태가 발생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 다.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 야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2002도4229판 결)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 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 추 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 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 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매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 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분조위 권고를 금융 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 여)을 도입하고, 분쟁조정을 거부한 금융사 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비자 가 승소 시 분쟁금액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집 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 및 처벌 강화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올해 금융소비자 법 제정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누 락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를 도입해 야 한다.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는 금융 다단계 방식 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08년 체포돼 15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 중이 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범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CEO 칼럼





지난 주말, 여성 커리어 성장 플랫폼 '헤 이조이스'에서 열린 비대면 콘퍼런스에 연 사로 참여했다. 대주제가 '돈'이며 특별한 기회를 만나기 위한 '퍼스널브랜딩' 이야 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돈을 피해 가는 사 람인 내게 너무나 어려운 주제라 사양했더 니 경제적 자본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위 한 브랜딩도 좋겠다는 피드백이 왔다.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중심을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존재 이 유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떤 대상의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는 것과 유 사하다. 브랜드는 이름이나 심볼 등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며, 브랜딩은 남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다가 아니 다. 상품이나 기업, 도시나 국가,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브랜딩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상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애착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이는 혹은 보이 지 않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브랜드는 사고이자 형식이며 내재적 기준이자 외재 적 실천의 축이다. 브랜딩은 고유성을 지 닌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나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여러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 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그러 려면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내 안의 나를 컨 설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역량과 지향가치를 지녔는지, 주변의 여러 이해관계 그룹에서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 를 어떤 과정의 접점들로 경험하게 할 것 인지, 오감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나'라는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자기만의 기 준을 일관되게 실체화하는 과정인 브랜딩 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MI (Mind Identity), BI (Behavior Identity), VI(Visual Identity)가 일치해야 한 는 다양한 변주를 하며 오래도록 잘 살아 기로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 그들과 나의 다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 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약속한 소신대로 사는 것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유전적 기질을 타고 태어난 브랜드 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맥락을 만나고 때로 는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하는 기준은 내성을 키우고 주변의 좋은 에너지를 통해 진화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다. 브랜드의 성장에는 생각하는 힘, 행동 하는 힘, 자존감과 유연성이 필요한데 좀 더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려면 '듣는 힘'과 '노는 힘'을 키워야 한다. 내면과 외부의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듣는 것은 나를 단 단하게 하는 데 큰 동력이 된다. 지루한 것 만큼 별로인 브랜드도 없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의 아주 작은 나만의 '노는 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일상과 비일상에서 각자의 노는 법을 아는 브랜드

사회적 자본 축적에 '퍼스널브랜딩'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스스로 '내 존 재의 이유'를 정의하고, 만들고 싶은 가치 를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펼쳐내야 한 다. 대체 불가한 존재여야 가치를 인정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브랜딩은 '남 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전에 '내가 내 기 준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가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전달해야 하며, 아 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안간힘을 쓰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는 "어지러운 사회일수록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자기 잠재력을 끌어올려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의 미학을 되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다. (GMC2020)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리는 아티스트이며 그 펜은 우리 스 스로 쥐고 있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부 담이 큰 시기인 만큼 나를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투데이, 말투데이

☆ 루이스 설리번 명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미국의 건축가. 시카고파의 중심인물. 주요 작품은 커슨 빌리 스콧 백화점. 건축 의 견고한 몸체를 철강으로 조립하고 유기 적으로 장식을 잘 연결하는 방식이 특징이 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56~1924.

☆ 고사성어 / 개과천선(改過遷善)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 내 이룩한다는 말이다. 진서(晉書) 본전 (本傳)의 입지담(立志談)이 원전. 진(晉) 니라 주처(周處)는 포악해 남산의 호랑 이,장교(長橋)의교룡(蛟龍)과더불어삼 해(三害)라는 평을 들었다. 그가 철들며 새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자 마을을 떠나 동오(東吳)로 갔 다. 거기서 만난 학자 육기(陸機)가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이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하네"라고 격려하자 마 침내 학자가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 시사상식 / FANGMAN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 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7개 '빅 테크' 기업을 말한다. 기업 이름의 첫 글자를 이 어 붙인 이들의 시가총액이 7조 달러를 넘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졸지에

猝(갑자기 졸)+地(땅 지)의 형태인 이 말은 갑자기, 뜻밖에, 느닷없이의 의미로 쓰인다. '地'는 지경, 입장 등을 뜻한다.

☆ 유머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인기 절정의 여배우가 입원했다는 소문 이 나자 여기자가 간호사로 변장하고 병원 에 잠입하기로 아이디어를 냈다. 다음 날 출근하자 부장이 "그래, 어떻게 됐어?"라 고 묻자 그의 대답.

"죄송합니다. 타사에서 변장해 들어온 의사가 절 내쫓는 바람에."

멋있는 삶 연구소장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주목을 받고 있 다. 뻥튀기된 주식거래 대금과 넘쳐나는 신용잔고는 코로나19 사태로 1400대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를 2400선 위까지 끌어올 렸다. 증권사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한 순수익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더는 돈이 안 된다고 여겼던 수수료 수익은 눈덩이처 럼 불어났고, 이 수익으로 일반 직장인은 평생 구경도 하지 못할 수십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 니다.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피눈물 을 흘리는 고객들이 대거 등장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만 살펴봐도 소위 '제도권'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저열

기자수첩



박기영 사회경제부/pgv@

자본시장 좀먹는 썩은 나무들

한 폰지 사기 사건이다.

굵직한 사건을 빼고 봐도 사건 사고는 잦다. A증권사에서는 한 PB가 지인 돈을 수억 원 모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사기 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B증권 에서는 한 PB가 고객이 맡긴 돈을 마음대 로 굴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증권사는 앞서 직원의 사기행각에 방조했 다가 공범취급을 받기도 했다. C증권에서 는 퇴직한 직원들이 모여 사기행각을 벌이 다 한꺼번에 잡혀 들어가기도 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상장사들을 살펴 봐도 가슴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주가 조작으로 500억 원을 벌어들인 '회장님'은

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멀 리서 볼 때 숲이 멀쩡해 보인다고 썩은 나 무 몇 그루나 있는 것을 묵과해도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 썩은 나무들이 평 생에 걸쳐 소중히 모은 국민의 피눈물 같 은 돈을 빨아먹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관련 재판에서 단순한 '전주' 역할만을 했

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

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인물들은 '알 수

없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상장사를

물론 썩은 나무 몇 그루로 숲 전체를 판

하나씩 인수했다.

돈 버는 것은 좋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 본 이념이다. 그런데 남의 피눈물로 배를 채우진 말았으면 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未來指向 홈페이지 www.etodav.co.kr

社是 正道言論

(02)799-2669

발행·인쇄인 **김상우**

정치경제부

편집인 **김상철**

(02)799-2663 (02)799-2665

사회경제부 (02)799-2612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math>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필 추창근

국제경제부 (02)799-2643

편집국장 김종훈

(02)799-6741 (02)799-2644

더 그렇다.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팩스 구독·배달

주소

(02)799-2600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06900 서울시 동작구

논설실 자본시장부 (02)799-2648 부동산부 (02)799-2637 經濟報國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탐사보도팀 (02)799-2664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⑥ 워싱턴이 불타오르던 날

1812년 '최강대국' 영국에 선전포고한 미국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봉쇄' 였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수도 워싱턴이 불타는 등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영국에 밉보였기 때문이었다.

英 보호에서 벗어난 독립국 美의 고민

미국은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독립에 성공했지만, 대신 영국법의 보호를 받던 식민지 시절과 달리 영국의 보호 없이 독자적으로 상업 활동을 해야 했다. 특히 독립전쟁 이전에는 미국도 영국령이었기에 본국인 영국까지 배를 보낼 수 있었지만, 독립 후에는 영국 항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영국은 1651년 올리버 크롬웰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이른바 '항해조례'를 적용하고 있었다. 항해조례의 핵심 내용은 "오직 잉글랜드 혹은 식민지의 배만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였던 네덜란드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

하기위한목적이었지만독립 후의 미국에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캐나다와바베이도스를비롯한 카리브해의 주요섬이 모두 영국의 식민지인 상황에서, 미국 국적의 배는 가까운 나라어디에도 짐을실어나를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서부개발이라는 대안이 있긴 했지만, 당 시는 증기기관이 발명되 기 전이라 서부 개척의 진척 속도는 빠르지 않

았다. 미국이 이 문제를 이겨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나폴 레옹 전쟁'이었다. 1789년부터 1815년까지 지속된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영국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친 '대(對)프랑스 동맹'을 주도하면서 치열하게 맞섰다. 프랑스도 영국의 공세에 기만히 있지 않았다. 영국 본토 상륙 계획은 1805년 트라팔가해전의 패전으로 무산되었지만, 대신 1806년 이른바 대륙봉쇄령(大陸封鎖令, Continental System)을 단행하여 영국과의 교역을 전면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佛, 대륙 봉쇄 vs 英, 경제 봉쇄

이에 영국도 프랑스에서 다른 대륙으로 가는 배들을 나포하는 경제봉쇄에 나섰다. 활발하게 진행되던 국가 간 무역이자취를 감추고 각국 경제는 폐쇄경제로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경제봉쇄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영국에 포도주를 수출하던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대륙봉쇄령에 저항한 데 이어 네덜란드와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대륙봉쇄령을 어김으로써 세계 무역이 다시 살아나기시작했다. 이때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미국이었다.

미국은 독립전쟁 때 자신을 지원해준 프랑스와 원래 돈독한 관계였다. 대서양 에 면한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에 도착한 미국 선박의 숫자가 1795년 한 해에만 351척에 달할 정도였다. 물론 프랑스의 대륙봉쇄령, 그리고 이에 맞선 영국의 해 상봉쇄 영향으로 이 숫자는 크게 줄어들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도에 도착 한 미국 선박의 수는 1795~1815년 동안 총 2410척,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15척 에 이르렀고 이는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미국 선박 덕분에 전쟁에 필요 한 물자를 충당하고, 또 유럽국가들이 필 요로 하는 '해외 상품'에 대한 갈증을 다 소나마 풀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이와 같은 미국의 행동은 영국의 분노를 샀다. 영국 해군은 미국 동부 해안 을 순찰하면서 선박을 나포하고 배를 수색 한 것은 물론 '탈영병'이라는 누명을 씌워 선원을 잡아 가두는 등의 행패를 벌였다. 당시 영국 해군이 미국 선원들을 잡아간 것은 병력 부족 때문이었다. 영국 본토의 도시에서 밤중에 호각을 신호로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남성을 무차별로 징집하는 일을 벌일 정도로 병력이 부족했던 것이 다. 미국 선원들은 항해 기술이 뛰어날 뿐 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가 장 적합한 징집 대상이었던 셈이다.

가족을 영국군에게 징집당한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전쟁에 자신이 없었던 제퍼슨 대통령은 선전포고 대신 '수출입금지 조례(1807년 12월)'를 선택했다. 영국에 괴롭힘을 당할 것이니 아예 바다로 배를 띄우지 말자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 결과 1807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은 4900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1808년엔 900만 달러로 무려 80%이상 감소했다.

美, 처음엔 英에 수출입 금지로 맞서

1807년 제퍼슨 대통령이 폐쇄정책을 시행했던 이유는 "영국도 '무역봉쇄'로 피 해를 볼 것이니 조금만 참으면 미국에 대 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지만 영국의 태도 는 완강했다. 결국 14개월이 지난 1809년 3월 제퍼슨 대통령은 수출입 금지 조례를 폐기함으로써 사실상 영국에게 굴복한 꼴 이 되고 말았다.

14개월 동안의 폐쇄정책은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했다. 당시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담배, 밀가루, 면화, 쌀 등의 1차 상품 가격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쌀은 50%, 면화와 밀가루는 30~40% 폭락했으니 당시 농촌 경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더글라스 어윈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당시 수출입 금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국내총생산 (GDP)의 약 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한다. 참고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2.5% 역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1807년의 무역봉쇄 조치가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커져가는 경제적 피해, 결국 전쟁 선택

미국이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적 피해, 그리고 영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반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다는 점도 전쟁을일으킨 이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1812년 말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력이 생긴 영국이 군대를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시키면서, 미국은 수도 워싱턴이 점령당하고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불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도 마냥 당하지 않았다. 1815년 1월 미국 남부에서 벌어진 뉴올리언스 전투(Battle of New Orleans)에서 앤드루 잭슨이 이끄는 미 육군이 영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미군

은 총 안에 강선이 파인 라이플(rifle) 소총으로 무장함으로써 영국군에 비해압도적인 사거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승 리의 결정적 원인이었 다. 미군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국 장교를 집 중적으로 저격해 지휘망 을 흐트러뜨림으로써 손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두 나라 모 두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무엇

보다 영국은 오랜 기간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손실을 입었고, 미국은 영국이 프랑스를 굴복시킨 이후 해상봉쇄를 풀면서 무역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815년 초 헨트 조약을 통해 전쟁이 종결되고, 다시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전열보병' 겨냥한 무기 혁신도 한몫

미영전쟁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잘 훈련된 정 예병이라 하더라도 무기 혁신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국군의 주력 무기인 활강식 머스킷은 사거리가 짧고 또 부정확했기에 나란히 늘어서서 총을 쏘는 이른바 '전열보병(line infantry)' 전술에 의지했는데, 이는 미국의 저격병에게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참고로 미영전쟁으로 교훈을 얻은 영국군은 이후벌어진 크림전쟁에서 전열보병 전술을 펼치는 러시아군에 대승을 거두게 된다.

미영전쟁의 두 번째 교훈은 "경제봉쇄 보다 차라리 전쟁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무역을 못하는 고립경제의 환경이지 속되면 앉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전 쟁은 상대의 방심을 노려볼 수 있고 또 새 로운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더 나 은 선택이 되었던 셈이다. 물론 전쟁이 무 조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폐 쇄경제'가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역사적 경험이 아 닐까 생각된다. EAR리서치대표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새로 설립한다.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불법과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적으로 감독·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 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 난달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검토를 지 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산하의 기존 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산하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해 범죄 관련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자본시장조사단은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개인의 금융자산과 거래, 신용 및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의 불법행위대응반이 9억원이 넘는 주택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설 기구도서울·수도권의 웬만한 주택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두 조사할 가능성이높다. 이미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는다.

지나친 개인정보침해이고, 개인간 사적(私的)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많다. 정부 가 그동안 수도 없는 규제를 쏟아냈 지만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역 효과만 나타났다. 그걸 잡겠다고 다 시 더 강한 규제를 덧씌우는 악순환 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의 불법적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거래에 대한 전방 위적인 감시와 조사가 과연 집값 안정 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 히 의문이다. 지금도 정부의 시장 감독과 통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징수, 금감원의 대출 규제, 국토부의 불법행위 조사, 감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질서 교란 단속 등 그물망이 촘촘하다. 여기에 다시 부동산 거래분석원까지 만들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통제가 당장에는 매수 심리와 거래를 억눌러 시장이 위축되고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일시적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시장의 착시(錯視)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불법적 투기의 탓으로 돌리고 규제만 계속 늘린다. 집값 상승은 투기보다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않는 문제에 기인한다. 거래를 막고가격을 통제하는 정책만 되풀이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한 컷



계절이 세 번 바뀌도록

9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지며 시나브로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된다. 서울 한 거리의 상점에 전시된 가을 옷이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놓은 뒤로 계절이 세번 바뀌었다. 올해 초 많은 이들은 9월쯤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돌아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다. 불편해도, 답답해도 조금만 더 참자. 평범한 하루를 되찾기위해.



SAMSUNG

건조기에 바라는 모든 기대를 담아 거조기이 새 역사를

건조기의 새 역사를 시작했듯이

건조기가 갖춰야 할 모든 기술력을 담아 **최고 수준의 건조기를 완성합니다**

건조기 역사의 시작이자 완성 **삼성 그랑데 ^시** 2018년국내최초3월대용량14kg 건조기 출시

2018년국내최초11월대용량16kg 건조기 출시

2020년국내최초1월올인원 세탁기&건조기 출시

2020년국내최초3월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건조기 출시

2020년국내최초·국내유일5월녹색 인증

2020년 국내최초·국내유일 6월 전용량에너지소비효율1등급건조기보유

2020년국내최초 최대용량7월17kg 건조기 출시





^{*} 국내최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건조기 출시, 국내최초·국내유일 전 용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건조기 보유: 20년 6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품목 신고 기준, 17/16/14/9kg 모델에 해당 * 국내최초, 국내유일 녹색인증 : 녹색기술인증 내에 가정용 의류건조기술 부분에 해당

* 국내최초, 국내유일 녹색인증 : 녹색기술인증 내에 가정용 의 * 세부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 참조